朝鮮日報
夕刊 十五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每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옴 피부병 하백고

黃河를건너猛砲擊
隴海線을完全遮斷
潼關의反擊敵을全滅

【曲陽十五日發同盟】山西最南端黃河沿岸의 芮城 平陸을 占據한○○部隊及 金岡快速部隊는 十一日 以來 黃河를 건너 函谷關、陝州方面의 敵軍事施設을 猛擊、이를 擊破하엿다 玆에 隴海線은 潼關、函谷關、陝州의 三點에서 完全히 遮斷되엿다

【曲陽十五日發同盟】十三日午前七時頃 潼關에잇는 敵約六百은 我方에反擊하려고 船舶으로 黃河를 渡河攻擊하여왓스므로 我中川部隊의 沿岸警備兵은 이를 發見하고 猛射를퍼부어 約四百五十을河中에 擊滅하고 上陸한百五十을 全滅시켯다

界河城占領

【兗州十五日發同盟】津浦線에 蟠居한 頑敵을 驅逐하고저 十四日朝來 敵의 第一線要衝界河攻擊을 開始한 福榮部隊는 猛烈히 抵抗하는 第百二十七及 百三十二師의 敵을 壓迫하야 三十里鋪의 線에 進出、潰走하는 敵을 쪼차 十四日午後五時 界河停車場을 占領하고 同六時界河城頭노피 日章旗를 揭揚하엿다

國家總動員法案
各派無修正可決키로態度決定
十六日衆議院通過乎

【東京電話同盟】國家總動員法案은 急轉直下政黨側의 態度軟化에依하야 十二日 質問을 完了하고 十三、十四兩日에 亘하야 政民兩黨이 모두 各其關係委員幹部政調役員代議員等 各機關에서 本法案에對한 態度에關하야 協議를 거듭하고 여러가지論議도 잇섯스나 結局 時局의 趨勢와 政府及 軍部의 强硬態度並 修正의 技術的困難等에 依하야 大勢는 原案을 承認할바 가업게되여 民政黨은 十名의小委員에 또政友會는 砂田代議員長에 贊否에對한 措置를 一任하기로되엿다 따러 兩黨代議士는 十五日 院內에 會合하고 兩黨의 意向을 對照하여본後다시 幹部會를開하고 黨의態度를 正式으로 決定할터이며 大勢로보아 兩黨이 모두 原案을 承認할것은 疑心업는바이라한다 다만 法의運用에關하야 嚴重한 附帶決議를 附하기爲하야 그案文等에關하야 더욱協議를 遂하야 아마十六日午前 總動員法案 委員會를開하고 原案을 可決한後同日午後의 本會議에 上程할터이라고 觀測된다 또 社大其外 小會派는 原案支持를 決定하엿스므로 玆에多數한 波亂을 거듭한 本法案도 마침내 全會一致 衆議院을通過하야 貴族院에 廻附할豫定으로되엿다

支那開發會社 法案要項

【東京電話同盟】政府는今議會에 北支及 中支兩開發國策會社案을 提出할方針下에 銳意準備를急히 하고잇는바 겨우 成案을엇게되엿스므로 十四日 院內閣議에附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右兩法案要項은 左와如하다

北支那開發株式會社法案

▲總則
一、北支那開發株式會社는 北支那의經濟開發을 促進하야 그統合、調整을目的으로하고 本店은 東京에設置할것
一、資本金은 三億五千萬圓으로하되 그半額一億七千五百萬圓은 政府出資로함

▲役員
一、總裁一人 副總裁二人 理事五人以上及監事二人以上을置함
一、總裁 副總裁는 政府가이를命令하고 任期는 五年 理事는 株主總會에서 選任하야任期四年 監事는任期三年으로함
一、總裁副總裁及理事는 他職業에 從事함을不得함
一、當會社에 顧問若干人을置함을 得함

▲業務
一、當會社는 左記事業에對하야 投資又는 融資를하고 그經營을 統合 調整함
가、交通 運輸 港灣事業
나、通信事業
다、發送電事業
라、鑛業
마、鹽業並同販賣利用事業

▲北支開發債券
一、當會社拂込株金額의 五倍까지 北支開發債券을 發行함을 得함
一、政府는 北支開發債券의 元本의償還及利息에對하야保證함

▲政府의監督
一、北支那開發株式會社는 政府의監督을受할것
一、借入金 定款變更利益金處分은 政府의認可를要함
一、政府는 業務監督上國防上北支開發을 促進키爲하야 必要한 命令을할수잇슴
一、政府는 當會社에 監督官을 置함을得함
一、配當利益金은 民間所有株式에對하야 年六分步合에 達하기까지 政府所有株式에對하야 利益配當을 하지안키로함

全市民의歡呼裡
히틀러總統獅子吼

【維也納十四日發同盟】市民의熱狂的歡呼裡에 維也納에入한 히틀러總統은 十四日午後七時半宿舍인메리알호텔발코니에 나타나 호텔前廣場에모힌 數萬群衆에게 大要左와如한 獅子吼를 試하엿다

게르만民族同胞諸君 過去五日間諸君이感한바는 나도亦是기피感한바이다 바야흐로 我等의 祖國은 意義깁흔 歷史的轉換時機에 際하여잇다 諸君이 感한것은 二百萬의 維也納市民이 感하엿슬뿐만 아니라 七千五百萬의 獨逸 全國民도 亦是 이를 感한바이다 바야흐로 獨墺間에는 牢固한 相互忠誠誓約이 存在하게되엿다 如何한脅威、如何한暴力、如何한災厄이잇드라도 我等의 이誓約을 破棄할수는업다 나는 이誓約을 維也納으로부터 칼른、할무룩에至하기까지 獨逸全國民이 傾聽하는 게르만民族에게 聲明하는者이다

總統의演說에 호텔前의繁華街를 채운大群衆의感激은 最高調에達하야 『하일·히틀러 我等의總統』이라는 絶叫는 古都維也納에들러 市內에는 到處에 歡呼와 感激의 坩堝로化하엿다

히틀러總統一行 維也納首都到着

【維也納十四日發同盟】히總統이歷史的維也納入을한當日 二百萬維也納市民의 胸中은 歡喜에 沸騰하엿다 일은午前中에 다거올리고 各者가 하켄쿠로이쓰의獨逸國旗를 가지고 櫛列하야 正午頃부터 市街沿道에 꽉차서總統一行의 到着을기달리고잇다 午前十時지나 리쯔市를出發한 히總統一行은 二十六臺의 自動車七臺의트럭을 連하야 時間한 七十五哩의 街道를 徐行、沿道에서서 歡呼聲을 올리는 各村民에 答하면서 午後五時五分 由緖기픈古都維也納에드러가매 기달리든 市民의 歡喜는極度에 達하엿다 總統乘用의 無蓋車가街道를 通過한즉 市民들은旗를흔들며 히틀러萬歲를連呼 暴風과가튼喝采를보낸다 카키色의 나치스黨服에裝身한 히틀러總統은 車中에 起立하야 右手를 비슷시前方에 들어 終始나치스式의 敬禮로 答하엿다 午後五時四十分 總統은 슈르펜베르크廣場에 내리여 此處에整列한 獨墺軍隊를閱兵 이것이 마치자宿舍인괴알호텔에 드러가 少憩한後 호텔의 발코니에 나타나 維也納市民에 第一聲을 發하엿다 (寫眞은 히틀러總統)

佛쥐援助條約
불룸新首相堅持

【巴里十四日發同盟】難産의組閣에成功한 불룸新首相은 休息할사이도업시 歐洲安全保障體制의挽回에進出하게되여 十四日午後五時 首相官邸에 쥐코公使 오스수키를招致하고 [illegible] 外相을兼하야 [illegible]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席上 불룸首相 봉쿨外相은 一旦有事한 境遇에는 佛國은 쥐코에對하야 相互援助條約에基하야 義務를 充實히 履行할 用意가잇다고 言明하야 쥐코를 激勵한模樣이다 右會談後 봉쿨外相은쥐코에對한 佛國政府의 決意를英國政府에 傳達하도록 콜방駐英大使에 訓令하엿다 그리고 同外相은 獨墺合邦後의新情勢에對應할 佛國政府今後의 方針을協議키爲하야 維也納 브롯셀駐箚大公使에對하야 歸還命令을發하엿다 불룸首相은 체벌린英國首相과 呼應하야 近近 議會에서獨墺合邦에關한 重大聲明을 行할터로 同聲明에서 佛國이 國際義務特히 쥐코에對한 條約義務에忠實한 點을强調하기로될것이다 (寫眞은 불룸氏)

兩國軍總司令官
獨墺軍合體를宣明
墺軍隊一部뮌헨移駐

【維也納十四日發同盟】墺太利陸軍總司令에就任한 폰·복크將軍及獨逸國防軍總司令官폰·부라우히치將軍은 十四日維也納에서 各其布告를發하야 獨墺兩國軍의合併을 中外에宣明하엿다

▲폰·복크將軍布告 本官은 爾後墺太利領內에잇서 墺太利軍隊의 指揮를管掌하고 獨墺兩國軍의 融合合體를實現할것이다

▲폰·부라우히치將軍布告 獨墺兩國軍의合體는 牢固不拔하야 兩國軍은 조금도 相違點이업서 渾然一體의 獨逸軍에 融合할것이라는것은本官이 確信하야 疑心치안는바이다

【뮌헨十四日發同盟】獨墺合併에따러 兩國軍隊는 相互로國軍을移駐시키게되엿는데 墺太利國軍의 第一次移駐部隊는 十四日뮌헨에到着하엿다 墺太利에 出動中인 뮌헨國防軍留守兵舍에드러갓는데 뮌헨市民은同部隊의 行進하는沿道에堵列하야 熱狂的歡呼를보내엿다

高倉中尉戰死

【灤河鎭十四日發同盟】○○通信隊高倉浩中尉(水戶出身)는 兵四名과함께 十三日正午지나 灤河鎭西方三里의 地點에서 活動中突然 十數名의 敗殘兵에게 襲擊되야 一時間에 亘하야 交戰하야 겨우五名으로써 不少한損害를 敵에게주어엇스나 마침내衆寡不敵하야 敵彈을맛고 壯烈한戰死를하엿다

駐墺英佛公使 十四日에歸國

【維也納十四日發同盟】駐墺英國公使팔스파레트氏 佛國公使가부리엘퓌우는氏는 各其本國政府의命令에依하야 墺太利情勢報告次十四日午後維也納을出發하야 歸國途上에올랏다 兩公使는 今後形勢如何에依해서는 維也納에歸還치안흘리라고한다

쥐코나치스黨大會
民族自決을提唱
黨首對獨忠順을强調

【프라하十四日發同盟】獨墺合邦完成에 쥐코슬로바키아의 나치스黨으로서 獨逸國民을 代表한 주데텐黨은 十四日 프라하에서 黨大會를 開催하고 民族自決의 氣勢를 올리엿다 席上에서 롯쉬議員은 이러서서 國際情勢의 緊急에 鑑하야 黨員의自重을要望하야가로대 주-데텐黨에 關한 獨逸人은 어데까지던지 公正하게 行動할것을要望한다 我等의 運命은 恒常合法的手段의實現에 依하야 할것이다 주-데텐黨은 國內秩序擁護의 要素이란것을 쥐코슬로바키아는 諒解할것이다 黨首코랏트·헨라인氏도 또한合法的處置를 强調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我等은 權利와 眞理와 正義를爲하야 鬪爭을繼續하려는者이다 獨逸國에對하야 忠實하려는 信念은 我等주데텐黨員의胸中에 기피銘刻하여잇는것을 我等은充分히 알고잇스므로써 이와我等의 鬪爭은반드시 成功할것은 確信하야 疑心치안는다

체벌린首相 國民協力要望
軍需生産增大에

【倫敦十四日發同盟】체벌린首相은 十四日午後 墺太利問題에關한演說中 今後事變의 推移에依하야 國民의努力을 必要로할境遇에는各分野의協力을 要請한다고 冒頭하고特히如左히述하엿다 今後 英國은 國際情勢의 進展에따라 어느程度戰時體制에 入하야 產業資源 人的資源總動員에 進出하게될것이다 그러나 强制를 避하고 國民의自發的協力의基礎우에서軍備再整備推進과가튼 結果를엇고저한다

思想犯罪取締 司法省具體方針

【東京電話同盟】司法省에서는支那事變에依한 思想犯罪取締對策의 必要를 認定하고 十三年度追加豫算에 四十四萬餘圓을 計上하야 大藏省의 承認을 어덧는데 그具體的方策은 如左하다

▲刑事局所管
一、從來思想犯罪는 左右兩翼이모두 第五課에서 處理하던것을 書記官을 一名增員하야新六課를 新設하고 左翼及右翼事件의 處理를分管함
二、從來 思想係判檢事의 實務家會同을 年一回開催하엿섯든데 右外에思想連絡會同을召集함
三、새로 控訴院管內別로 思想係判檢事會同을 開催함

▲保護課所管
一、思想犯轉向者의 保護擁立을爲하야 事務官을一名增員함
二、思想犯轉向者保護事業奬勵金을十萬圓增額함

오직伯羅樞軸
뭇솔리니首相返電

【羅馬十四日發同盟】히總統은獨墺合邦에對한 伊國의支持에對하야 뭇솔리니首相에게 『貴下의好意잇는 支持를 余는 終生忘却할수업다』는 感謝한 親電을寄하엿다 이에對하야 뭇솔리니首相은 十四日 히틀러總統에게左와如한 復電을發하야 伊國政府의態度를 明白히하엿다 今回 余가取한 態度는 伯林 羅馬樞軸에 依하야 굿게맷근 兩國間의友好的精神에基하야決定된것이다 (寫眞은 무首相)

八面鋒

◇ 잉콰르트 墺內相、首相으로、大統領으로 그리고 今日에는 墺太利州知事로 轉轉。

◇ 墺太利 一國으로선 大統領감이지만 獨逸國이 되면 一州知事에 不過。

◇ 革命家의 眼中에 地位、名譽가 잇슬理 萬無하지만 墺太利民族으로는 一獨立國으로 一地方되는것이 愛惜할걸。

◇ 獨逸의 首都 뮌헨으로 遷移決定。

◇ 共和國憲法을 와이말서 發布햇스니 나치스首都를 本據地 뮌헨 둠은 當然。

◇ 況 뮌헨은 地理上、墺太利와가깝고、佛國과 쥐코國과 뺄칸諸國等을 分裂시킴에 充足。

◇ 普通學校 卒業生의 入學試驗에 對한 學校長의 所見表檢討問題 擡頭。

◇ 所見表도 參考 안될바는아니지만 하도 志願者가 만흔今日 이 所見表도 第三次第四次問題。

◇ 中等校를 相當히 세우고 그리고 校長의 所見表를 主로 試驗을 從으로 選拔함이如何。

本社參觀

▲高陽郡私立仁昌普通學校生徒六十名 金泳赫氏引率下本社見學

人事·集會

▲金鎭鼎氏(京城府學務課囑)十五日洪城郡洪州面五官里自宅에서 遭內艱

佛議會、財界에 倒閣論擡頭

【巴里十四日發同盟】불룸內閣은 組閣에 三日을要한後 豫期치안튼 獨墺合邦事件에促進되여 十四日 겨우成立하엿스나 그構成은 第一次불룸內閣과 거의다름이업서 따라 過渡的內閣에不過하다는見解가有力하다 强力內閣을 要望하는 政界財界의一部에는 不滿한비울 더욱노후어 特히 議會方面에서는 에리오下院議長달라디에國防相이라면 擧國一致內閣을 期待할수잇다는 期待로부터 불룸內閣打倒의 氣勢를 올리는者도 엇서 新內閣은 相當히 議會에서 苦戰하리라고 豫想되고잇다

獨墺合邦推移를
米國政府重大視

【華府二十四日發同盟】米國政府는 獨墺合邦의 推移에 非常한 關心을가지고 注視하고잇는데 歐洲의問題는져 愼重히 態度를取하고잇는模樣으로 十四日國務長官도 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서 歐洲情勢의 發展은 米國政府가 벌서이에對應할對策을 樹立할 程度의點에至하엿다고 意味深長한말을 漏洩하엿다

一方쥐코公使 프르만氏는 國務省에 웰스次官을 訪問하고 쥐코의防備에 對하야 여러가지協議하고 波蘭大使 포토키이伯은白堊館에 루즈벨트大統領을 訪問하는等 華府外交界의 動向은漸次活潑하여왓다 議會方面에서는 民主黨議員 오-든옷氏가 墺太利의獨立이 復舊하기까지 獨逸과의 外交關係斷絶을 主張하는 過激한決議案을 下院에 提出하엿다 共產黨中心으로한 反나치스데모는 依然不止하야 警官隊는 獨逸大使館 墺國公使館前에 몰리엇든 示威運動者를 政治運動取締違反嫌疑로 逮捕하엿다

時事解說
레옹·불룸

때는 方他 獨墺合併問題로 佛國도 뒤흔들니는 西에서는 쇼탕內閣總辭職의뒤를 바다 레옹·불룸氏가 組閣의大命을 바더 人民戰線第四次內閣을 組織하게되엿다 불룸氏는 今年六十六歲로 일직스 太然한 家族의 아들로서 巴里에서 낫다 氏는 二十七歲時에 社會黨에 入黨하엿스나 實際政治에 活躍하기는 歐洲大戰中 一九一九年 四十九歲에 비로소 下院議員에 當選되엿슬때부터라 大戰後社會黨의 中心人物로서 重要한地位를 占하게되엿다

◇ 佛國政治史上 最初인 社會黨內閣을 처음으로 組織하야 其首班이 된것은 再昨年六月이엿는데 氏의第一次人民戰線內閣은 佛國政治史에도 有名하엿다 一年間內閣을 持續하엿는데 昨年六月에 金融全權案을 차고 議會의信任에 敗하야 挂冠하고 쇼탕氏가 그뒤를 이어 閣內에 머므러엿다。

◇ 今年一月에 쇼탕內閣이 總辭職하자 氏는 再次組閣의 大命을 拜하엿스나 共產黨의反對로 組閣이流產되고 쇼탕氏가 다시組閣케되여 今日에至하엿다 불룸氏는 佛政界에서도 有名한 社會改革家로서 또 革新政治家라는것은 이미 氏의第一次人民戰線內閣時代에 經驗한바이다 이러한 氏도 大學時代에는 哲學、法律을 배워 辯護士가 되엿는데 文學、演劇에도 興味를가저 靑年時代에 有名한 文藝批評家로서 有名하엿다고한다。

敵機擊墜
搭乘者는捕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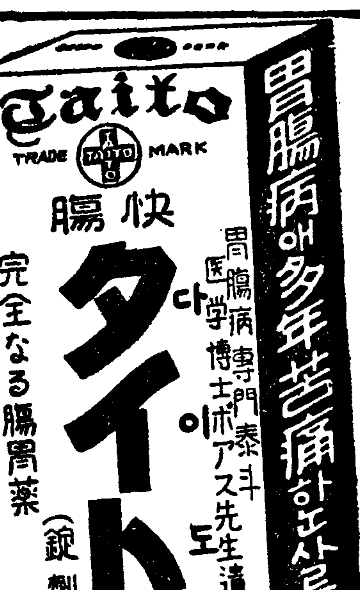
【上海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四時頃 蘇聯製SB爆擊機가 [illegible]湖方面에 偵察飛行을試하엿는데 吉川中尉가 指揮하는 ○○機는 此를追擊 蘇湖北方約十키로의地點에서 一擊에擊墜 [illegible] 機는 急히逃走하엿다 또擊墜된敵機의 搭乘者는 파라슛트로落下 逃走하려하엿스나 我地上部隊에게 捕虜로되엿다

高等簿記生徒募集(晝夜間部)
○會計實務員短期養成 ○太平通大韓門 中等公民學校附設
○願書締切四月十日限 ○學則要郵券三錢
京城實踐簿記學院

▼코물이늘나서괴로운분
▼코가마켜서답답한분
▼쿵쿵한농물이나오는분
▼코가마르고진무른분
▼물건의냄새를모르는분
머리가흐릿해서 아무일도못한다든사람이本療法을 實行한뒤로는머리가썩조케되여 記憶力과思考力等이旺盛히되고 根氣를持續할수잇서서 滋味난만치일의能率이난다고하는 體驗實例가 不絶히輻輳하고잇습니다
아즉本療法을알지못하시는분들은 本紙上에서알게된것이幸運입니다卽時下記製藥所로葉書로申込하십시요、떡터-湊謙治先生父子二代에亘하야苦心硏究한『鼻病의家庭療法』書를無料로送呈합니다
必히 잘듯는 ミナト式
藥價 一圓四十錢 二圓二十五錢 四圓五十錢
東京市日本橋區吳服橋三ノ七 湊製藥東京營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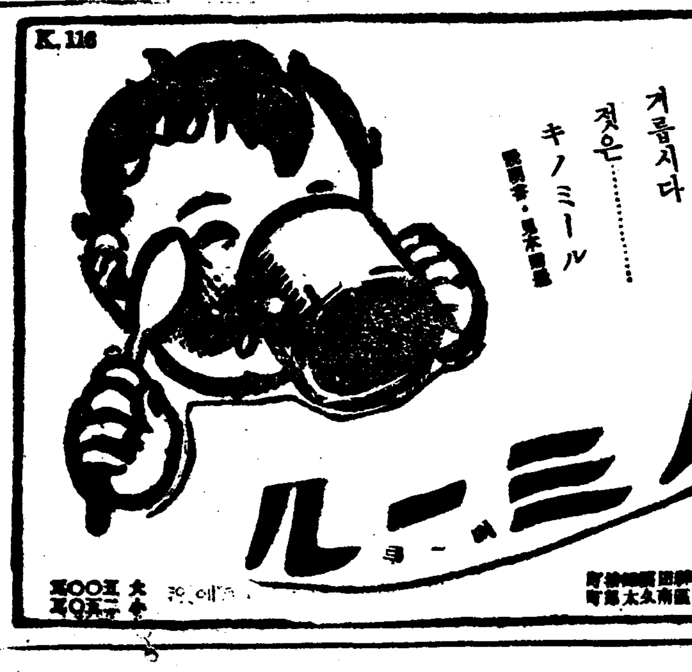
播切期迫 一株百枝

急性慢性下痢症에난 百發百中
한번만試驗으로 服用하면效力을得함
藥價 ¥50 ¥1.00 ¥2.00 ¥5.00
責任本舖 大阪市港區 隈田春日堂大藥房
到處藥店에잇슴 品切일時는 本舖로注文하시압



慢性胃腸藥
胃腸病에多年苦痛하는사람
高貴藥을 한번服用하시면 越等한效力에 놀라실것입니다
腸快 タイト 完全なる腸胃藥 (錠劑)
胃腸病專門泰斗 醫學博士 이다 도 ボアス先生遺方
セーラー万年筆 特約店 鐘路二ノ九一 耶蘇敎書館 電話光二〇九〇番

ダイヤ型 이쁘게된 十二角軸 ¥3.00부터
兩面書 一本으로 太細書用 ¥3.00부터
다이아型에兩面書펜付 ¥3.50부터
セーラー インキ
セーラー万年筆



K.116
씩씩하게 또貴엽게 기릅시다
젓은……
キノミール
母乳代用 キノミー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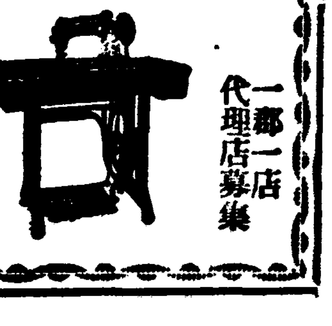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所 電光一一五九番

京城府仁寺町一七八番地(寺洞四街里)
內科小兒科 姜內科醫院
醫學博士 姜聲郁
電話光二六六五番

◎鑛山買入廣告
本人이今般鑛業을着手이온대 登錄鑛山又는出願中에有한鑛山을勿論하고 買入하고자하오니 放賣하실人事가有하시면 表石과 說明書及五萬分之一地圖를添付하시와 四月十五日까지 付送하시되 價格을記送하시서야 技師를派送하겟슴니다
京城府仁寺町六二ノ三 朴承源

建築塗裝工事請負施工
耐久力과 外觀의美를 主要目標로하야 多年間全力을 傾注한經驗의 蓄積!
朝鮮一部塗裝業界의 弊風을 一掃코자 一定公平 至廉한單價로 良心的인 施工을합니다
多數한熟練塗工을抱容
營業種目 塗裝工事請負 建築塗裝 室內페인트 ... 高級模樣壁 ... 防空迷彩 ...
京城塗裝工務所 京城南大門通一丁目二十一 電話本局四七四三番
塗料는斯界에信用이絶對한 塗料卸小賣商 露油商會로 南大門通一丁目二十一 (電本四七四三番)

コントロール ミシン
이것이야말로 國産의代表
참으로優秀
그것의 權化……
가다로구一部
京城鐘路二丁目二七 朝鮮總代理店 楠商店 電話光二九六番
一郡一店 代理店募集



任意解雇淘汰制限 就職機會를均等化

失職者保護眼目의職業紹介所法 明年度부터朝鮮도實施

실직(失職)자 사태를두통알든 조선에도 직업소개소법(職業紹介所法)을 실시하야 일반실직자로하야금 국법에의하야 취직의알선을 도모한다는 실직계의명랑한 소식이들린다

이번 의회(議會)에서 직업소개소법이 통과되엇스므로 조선에도 명년부터 이것을 법령으로 적용실시하도록하고자 방금 총독부내무국에서 그법령의초안을 준비중이다 그내용인즉 현재조선각지에잇는 직업소개소의 시설은 전부부영(府營)혹은읍영(邑營)등의 공영으로 구직(求職)하는자와 구인(求人)하는자를 접합하야 괴차조건이 적합하면 알선하야주는기관으로 결국 직업소개소가아니라도 사람을 구할수잇스며 직업을 구할수잇는 경우를 알선하야주는 정도에불과하야 한층특별한 기능을 발휘하지못하게 되므로 실직자는 아무리적극적 은택을 입지못하는 현상이므로 실직위원회에는 특별한효과를 나타내지못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직업소개소법이 실시되는날에는 이법령에 의하야 실직자를 소화시킬만한 각기관을조사하야가지고 각각 그직업에 적당한사람을 명령적으로수용하도록하야 될수잇는대로 실직자를 대량 소화시키는것이다

그리하야 구인자측에서 칠분의원근을은 기타정실관계로 다른곳에 재적중인 사람을 전직시켜오면서 신채용을아니하거나 사실이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업의긴축을핑계로 직원혹은 직공기타고용인을 도태한후 다시 정실에의하야 재용하거나 또는부터한폭리를 목적으로 함부루이원을도태하는것을 금지하는것으로제반것을 모든명령계통을 원측으로통제한다는것인데 출정중 귀환장병(將兵)에그우선권을수는것은 물론이다

無理한緊縮淘汰 實情을調査禁止

斡旋機關으로부터命令機關에 職業紹介所를昇格

병합파가티 각사업기관이 이익 정실기타를위하야 직공 고용기타직원을 도태한후 다시채용하는등의 폐단을엄금하는것은 물론이어니와 이에한거름더 나가서 직원 직공등을 넘비하더 사용하고도 오히려상당한이익을 남길수가잇슴에도 불구하고 대리를위하야 소위긴축을하는것은 어느정도까지 허락하지 안는동시에 각각적당한 인원을 명령적으로 알선하야 적당한인원을 수용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리하야 직업소개소가 종래단순한 알선기관이든것을 국법으로써명령계통의 기관으로 절대강화하는것이다

朝鮮神宮新年祭 ―― 조선신궁에서는 십오일오전열시반부터 일년중 삼대제의하나인 기념제(新年祭)를 성대히거행하엿는데 이날 남(南)총독이하 관민이백여명이 참렬하야 장엄한제전이 집행되엿다(사진은식장)

市內新入普校生 學校配定區決定

지난달말에 마감한금년도부내공립보통학교의 지원자는 수용자수칠천팔백여명에 대하야 일만이백여명에 달하엿는데 이지원자를 경성부학무과에서 각학교의통학거리와 수용교실등을참작하야 적당하게 배정을하야오는이십일에는 각지원자에게 입학시험사정번호표(査定番號票)와 함께 그배정된학교인 사정장소의통지를 발송하게되엿스며 입학고사는 오는이십일오전여덜시반부터 각각배정된 학교에서 보게되엇는바 통정은다음과갓다

▲校洞 [illegible] 勸農 [illegible] 樂園 ▲齋洞 [illegible] 苑西 花洞 ▲於義洞 [illegible] 苑南 仁[illegible] [illegible] 鍾六 [illegible]

▲仁峴 新堂 鍾六 黃七 黃六 光熙二 光熙一 ▲水下洞 黃三 水下 [illegible] 二 三角 長橋 觀水 水標 黃 二 黃三 明治一 明治二 永樂一 永樂二 黃一 本一 旭 一 旭二 長沙 茶屋 本二 旭三 若草 本三 大和一 ▲貞洞 中林 南大四 [illegible] 蓬一

蓬三 蓬四 西界 吉野一 吉野二 南大五 ▲梅洞 通義 樓下 [illegible] 社稷 內資 內需 積善 都染 [illegible]府 ▲漢洞 冷泉 竹二 竹三 北阿 峯元 [illegible] ▲麻浦 龍江 汝矣 新水 [illegible]水 玄石 [illegible]里 麻浦 桃花 岩[illegible] 土亭 ▲[illegible] 御成 南米 紅把 松月

平洞 西大一 西大二 竹一 貞洞 唐珠 [illegible]一 [illegible]二 和泉 西小 北米 太平一 武橋 太平二 ▲龍山 元四 渼水 元三 彌生 大島 錦町 元二 榮町 京町 山水 元一 新孔 ▲昌信 昌信 崇仁 ▲壽松 光化 中學 壽松 淸進 公平 堅志 寬勳 仁寺 瑞麟 [illegible]一 松峴 司諫 三淸 八判 都染 ▲孝昌 孔德(一番地―一一七番地) 靑一 靑二 靑三 漢江 三坂 岡崎 ▲舟橋 長沙 黃六 [illegible]木 西四 東四 笠井 長沙 [illegible] 鍾四 初音 花園 本五 新町 黃五 芳山 [illegible]一 [illegible]二 本四 大和 二 大和三 黃四 舟橋 林町 ▲[illegible] 八判 付岩 新[illegible] 弘智 [illegible] 新橋 玉仁 宮井 [illegible] 通仁 昌成 樓上 樓下

▲竹添 橋北 玉川 天然 橋南 杏村 冷泉 ▲惠化 城北 東崇 明倫 蓮建 ▲往十里 下往 杏堂 [illegible] 沙斤 馬場 上往 龍頭 ▲龍江 大興 孔德(一一九番地―四八五番) ▲漢江 [illegible] 漢南 [illegible]光 鍾城 西氷 玉水 金湖 ▲鍾岩 安岩 鍾岩 新設 敦岩 ▲阿峴 阿峴 孔德 ▲永登浦 永登 堂山 陽坪 新吉 楊花 道林管外 ▲弘濟 弘濟 [illegible] 館洞 ▲淸凉 里門 回基 徽慶 淸凉 典農 踏十 祭基 ▲西江 老姑 滄川 東橋 延禧 新村 大峴 新井 賀中 倉前 上水 下水 唐人 西橋 合井 鹽[illegible] ▲新堂 新堂 ▲[illegible] [illegible] 本洞 黑石 [illegible] 上道

京畿道立工業校 四月二十日開校

新募生은百六十名

신설준비중에잇는 경기도립공업학교는 신설비중 기부를낫기로된 이십만원도 대공업회사를 비롯하야 유지등이십여명으로부터 기부승락이잇섯스며

수일내로 학무당국으로부터인가지령이내리기로되엿슴으로 그것을기다려 경기도 학무과에서모집요항을 발표하기로되엿다 신설초년도의 모집인원은 토목 광산, 전기, 기계의네과에 각사십명식일백육십명으로 느저도삼월이내모집하야 사월초에시험을마치기로 준비를 바삐하고잇스며 개교는 준비관계로 좀늣저사월이십일로 내정되엿다 전시체제아래 기술자의 수요는 격증하야가고잇는데다가 시험기가 자연늣게되는판계상 지원자는 굉장히만흘것으로써부터 경향각지에서 경기도학무과로 이학교에대한 문의가산저 하는것으로도 예상할수잇다

一萬圓土地詐欺

一名은新設町에서檢擧

십오일오전 부내동대문서 사법게에서는 신설정(新設町)사는 윤모(尹某)(三○)를 잡어다가비밀리에 취조를하고잇는니 경오경에는 또다시 형사세명이 자동차를 몰아신설정방면으로 달려갓는데 사건내용은 일체 말하지안흐나 탐문한바에 의하면전기윤모외사오명이공모하야가지고 신설정에잇는 토지약일만원어치를 사기한사실로써위조 사기단에 관한사건이라고하며 활동의결과는매우주목되고잇다한다

防護團員美談

방호단원의미담――부내북아현정(北阿峴町)산(山)이십오번지경전사원 박순남(朴順男)(三○)씨는 경성호구방호단제삼분단제팔반장(中區防護團第三分)으로 잇는데 그는지난밤 구랑알방공연습에그의정남 홍래(洪來)(三)군 이례인으로인하게 알는것을그대로 숨기고 이틀동안 완전히 연습을 마초후 벽구와하러 갓는데 불행히도 홍래군은 병이 더처서 십일오후 다섯시에 이세상을 떠낫슴으로 제삼분단장 소사중행(小寺重行)씨는 경성방호단장 좌백현(佐伯顯)씨에게표창하기를 시청하엿다한다

危險한칼모틴

고『칼모틴』을먹엇다가 죽을뻔한이야기――부내돈의정(敦義町)일번지 ... 벼이십사번지 광업남(黃一男)(三)은 십사일오후 일곱시삼십분쯤하야 부내관동정(館洞町)사번지 일번이십호 그의매부림형두(林亨斗)의집에서『칼모틴』을 만히먹고 고민하는것을 그의누도란이 발견하고 ...

北京在留朝鮮人 二千五百餘名

지난이월말현재 북경(北京)재류조선인은 칠백이십호에 이천오백사십칠명인데 이중에남자가 일천사백칠십오명 여자가 일천일백칠십이명이다 그런데 이것은모두 민회(民會)에 계출된것뿐으로 이밖게 계출되지못한것도 약일천명가량이나될모양이다

그리고 이것을 직업별로보면 료리옥 이십삼호 여관 십이호 대금업(貸金業)등의 순서로 료리업이 단연수위를 점령하얏고 무직이 유배오십일호에 일천이백삼십팔명으로 거의전수를 차지하고잇다

間島四大私校假認可 新學期부터募生

滿洲國新教育令으로閉校悲運에直面햇든 大成、恩眞、東興、明新校에光明

【延吉支局特電】만주국 교육령에 따른 재단화립이 안된까닭에 인가가 나오지안허 지금까지 생도모집이 안되고 임시폐교의 비운에까지 빠지게되어간도오십만 재류동포의 중대한 교육문제인 간도대성(大成)동흥(東興)은진(恩眞)명신(明新)등네개사립학교의인가는 작십사일간도성공서로부터 다음과가티 실업학교로 가인가(假認可)가나오게되여 십오일부터 생도모집을 하기로 되엿다 대성학교는 사립대성공과국민고등학교(私立大成工科國民高等學校) 가되여배명, 동흥학교는 사립동흥농과국민고등학교(私立東興農科國民高等學校)로하야 배명, 은진학교는 사립은진공과국민고등학교(私立恩眞工科國民高等學校)로하야 야배명, 명신여학교는 사립명신여자국민고등학교로하야 오십명을 각각신학기부터모집하기로되엿다

今年度至急電話架設

登記料假納廢止

架設料半額만假納토록變改 地方에따라架設料도假納廢止

경성에서는 오는이십일일부터 이십팔일까지 칠일동안전조선이백오십이개처의 전화취급우편국소(局所)에서 소화십삼년도의 전화가입개통『신업』을 밧기로되엿는데 금년에는 가설료(架設料)의반액만『신업』동시에 가납(假納)케하고 가입등기료(加入登記料)는 금년에는 가납시키지 안키로되엿다 그러고『신업』의가납도 밧지안키로 되엿다 이 국하적은곳에는 가설료반액의가납도 밧지안키로 되엿다 가설료반액가납을 밧기로 되는곳은 다음의 구십이개처이다

▲京畿道=中央電話局 仁川 永登浦 開城 水原 安城 平澤 利川 議政府 江華 ▲忠北=淸州 忠州 ▲忠南=大田 江景 天安 禮山 論山 溫陽 長項 ▲全北=群山 全州 井邑 金堤 南原 ▲全南=木浦 光州 麗水 順天 康津 ▲慶北=大邱 金泉 浦項 慶州 安東 甘浦 ▲慶南=釜山 馬山 晋州 統營 東萊 蔚山 居昌 三千浦 昌寧 ▲黃海道=海州 沙里院 載寧 延安 兼二浦 安岳 信川 長淵 甕津 白川 粟野 ▲平南=平壤 鎭南浦 新安州 ▲平北=新義州 江界 宣川 寧邊 車輦館 ▲江原道=春川 鐵原 江陵 原州 長箭 寧越 三陟 注文津 高城 外金剛 ▲咸南=元山 咸興 北靑 興南 惠山鎭 端川 西湖津 新浦 洪原 高原 ▲咸北=淸津 羅南 會寧 雄基 吉州 茂山 漁大津 朱乙 羅南

滿洲國서歸還者는 반드시種痘하라

歸還者三名이天然痘에걸려

최근 만주국에서 경상북도성주군(星州郡)으로 돌아온 배불철(裵不喆)(二)이라는 사람과 또그친구 두명은 모다 무서운 천연두(天然痘)로 진저(診定)되여 위생당국을 긴장케하고잇다 경성에서도 재작년 만주국에서돌아온사람들 천연두환자가 발생하야 크게떠들고 작년에도 부산(釜山)까지 천연두가 은사실에 비치여 이번 경성부와 경기도의경시헌실에서 만주 북지방면에 려행하는사람과 만주에서 도라오는사람들은 모도종두(種痘)를 무료로에방주사를 하여 놋든 바이어 려행자들은 미리 주사를 맛고 드러오기를 바란다고한다

淸津府會開幕

【淸津】 청진부회(淸津府會)는 십사일부터 사일동안을부르고 부회의실에서 열리어신년도청진부의 예산안을 토의하는데 도로 농조가 전개되야 작년보다 한층 예산총액을 돌하야 격렬한의론이잇섯든 고말산 청진도로(高抹山淸津道路)의 예산관계는 하야 금년도의 예산안에도 상당한 론쟁이전개될것으로보인다

放送料金遂減下

四月부터一圓을七十五錢으로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에서는 작년도에 『라듸오』청취자배가운동을 이르키는동시에 다년간 문제되어오든 청취료(聽取料)를 할수잇는대로 속히나리고저 여러가지로 연구중이엇든바 드듸여 오는사월분부터종래의 료금일원을 칠십오전으로 결정실시키로 결정하야 방금인가신청중으로 곳당국의 인가를 엇게되엿다한다 이와동시에종래 지방청취자에게는 한번에 석달치식 료금을바다왓는데 청취자의편의를 위하야 두달치식 구분납키로 청취계약도 개정할 예정이라한다

이것은청취자의 갑수되는 년에 약삼십만원이 감수되는 데 이것은장래청취자의 증가에 따르는 수입으로 보충할예정으로 현재 조선내『라듸오』분포상태를보면 조선사람이 백호에 한호가량이고 일본내지인은 백호에 사십이호가량으로 이호로 써게되므로 신흥이 고려한결과 청취자를 증가시키려면 조선사람에게 재미잇는 방송을 하여야한다는 결론에 달하야 이로 청취료를 내림으로 청취자를 증가시키려는것이다 청취자도 부득불기대하는바 만흔것이다

土師會長談

청취료인하문제는 다년간의 현안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하야 여러가지로 연구중이든바 이번 드듸여 실현이되엿습니다 조선사람의 청취자는 백호에 한호가량이라니 『라듸오』에대한 인식을 깁게하는 의미와 또 청취료를 내린으로 청취자도 부쩍늘것이라는 기대하에 전기로 인하하기로 되엿습니다 금번청취료를 인하한것도 도자의위안과 교양을 생각하는데 전기사업가의 주기를바라는바입니다

"君"家兄弟"莫"能當"

三兄弟前科合計十一犯

현재의 전파를 합하니 십일범 신사일오후 부내본정서원이 장곡천정(長谷川町)에서 십이삼세의 소녀한명을데리고잇는거동수상한 장년두명을 본서에인치하여다가 취조하엿는바 그들은 경기도 부천군(富川郡)에 본적을 둔윤모(尹某)(三)과윤(尹某)(三○)부은 절도사기강도등 전과칠범이오 동생은 절도강도등 전파삼범이라고하며 청년시대에는 상당한 강력범죄에를는 자들이나 최근에는 나이먹어서 소녀유괴나드는등실로서는 손님을 속여가며 겨우 생계를 세우고잇다고 진술하엿는데 전과가만흔자들이니만치계속취조중이라고한다

咸北道會閉幕

豫算도無修正通過

【羅南】제칠회 함북도회(第七回咸北道會)는 지난오일이래십이일까지 전후칠일동안 함북도청회의실에서 열엿든바 예정대로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십사개의 의안(議案)을전부 무수정으로 통과시켯다 특히그중에도제일호의안인 세입출예산안의 의안에대하야는 약간의론의가 잇슷다음 사백사십칠만사천칠백육십팔원의 예산총전부증인하야 약진함북의 면모에 지지안흔방대예산을 실행에옴기게되엿다

南浦穀物檢査

昨年同期三倍

【鎭南浦】곡검(穀檢)진남포지소관내의 이월중 곡물검사총수는 백일만이천구백륙십칠가마니로 작년동기에 비하야 약삼배반이나 증가되엿는데 금년은 전기와가티 례년에볼수업는 격증은 지난해의 농작물의 풍작을 여실히 말하고잇다

一月中北支進出者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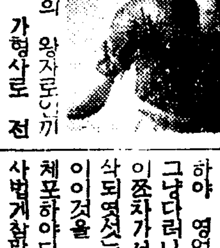
【奉天】북지사변이후 북지경기가 조라고하야 일확천금을 꿈꾸고 북지로진출하는사람이 나날이증가하고잇는데 금년에드러서 정월한달동안에 산해관(山海關)국경을통과하야 입국한 전만연인원(全滿延人員)수통계가 철진일만일천일백오십오명으로 그중조선인은 일천이백삼십이명(男七五○名, 女三六二名)이되며 내지인칠천륙백사십구명과 대만인(臺灣人)두명등이라한다

"링"의覇者가轉落

流行犯罪假刑事노릇

旅館에든손이巡査로自稱밥갑투정

假警官跋扈時代!



한때는『링』우의 왕자로이끼가흡든권투선수가 가형사로 전락한이야기=전아세아권투구락부(亞細亞拳鬪俱樂部)사범 박용만(朴容萬)(三)은 십사일오후여섯시쯤 동료두명을다리고 부내종로(鍾路)오정목사십팔번지 리은성(李銀星)음식점에 드러가서술을먹은다음 료금을 계산하게되자『뻐―인』에게 변소에안내하라고하드니『동대문서 박형사를 몰라보느냐 너의집은소가 불결하야 영업을취소시키겟다』하며 그냥다러나라고 하는것을 주인이쪼차가서 노상에서 격투가시작되엿섯는데 순행중동대문서원이이것을 발견하고 세명을전부 체포하야다가 류치시키고 동서사법계가 박형사가 여죄를취조중이라고한다

여기는가수사=양수군 양주면(楊州郡楊州面)에사는 농부 오선룡(吳先龍)(二)은 십사일오후 열시쯤 부내신설정(新設町)집필번지 윤여년(尹汝年)의 여관에서 묵으며『자기는 동대문서순사인데 범인수사관계로 사복을하고 와다 그러나너의여관에서는 푹 리를부하고 잇지아느냐』하며지 출하엿든 숙박료일원삼십전중에서 삼십전만을 내고바드려다가동대문서에체포되여 방금사기죄로 취조를밧고 잇는중이라고한다(사진은 박용만)

自動車도눈이밝어야

交通事故를防止하기爲하야 헤들라잇光度、重心을隨時檢査

총독부경무국에서는 교통의복잡한데비추여 자동차의 헤드라잇트의 광도를어둥히 취체하고 야간교통사고의 방지에 힘쓰기로되여 금번광도계(光度計)를사드리여 이것을 경기도경찰부자동차검사장(自動車檢査場)에상치하고 수시자동차의 헤드라잇트를조사하여 그광도를 이상적으로 하는동시에 자동차의 중심측정기(重心測定器)를 사드리여서 상신으로까지 기우러저도 전국되지안흐정도의 자동차를 표준으로 정비시키여 교통사고를 절멸시키기에 노력하고잇다

公眼科

京城府齋洞町四番地

電話光二五九八

醫學博士 公 炳 禹

祝入學

培花女子高普

鄭姒治 李圭淑 金鳳山 金英蓮 朱洙緋 陳英修 金英珍 丁吉善 李仁順 朴鳳化 劉炯山 尹炳淑 柳秉男 南宮貞淑 李奉順 都相姃 金淳福 李順烈 鄭良模 河再善 韓英嬉 黃順華 宋鳳愛 林英玉 崔英玉 洪寅姬 金玉植 吳鉉婷 崔守粉 張在玉 孫愛淑 諸璟煥 朴明子 李貞玉 兪淑在 金蘭榮 尹慶田 李敬淑 金貞基 金史蓮 閔睿基 韓相金 李玉順 陳貞玉 金壽吉 金銀菊 諸廷一 金玉琪 李英姬 鄭福淑 金貴姃 張寶淑 李康姬 韓順姬 金貞愛 金淑姬 尹貼淑 裵善姬 吳貞煥 金玉鎭 洪愁約 崔貴東 金寶喜 朱仁敬 黃玉性 金明淑 金淸會 白信主 李海姃 李鍾文 鄭健好 崔秉順 田□愛 趙重英 金瓊南 申鉉卿 吳宗淑 李辛鉉 安卿淑 李後南 孫允烈 金英□ 孫金岩 申永子 李圭婉 劉榮在 金顯淑 趙亨淑 崔仁淑 李瑛喜 金寅源 金京熙 吳慶姬 金東晧 李順馥 金正玉 李貞勳 金烈姬 安貞姃 金成得 柳玉貞 李善玉 金瓊淑 史秉輝 李富婉

以上百五名(志願者五百十八名中)

天氣豫報

概況=高氣壓은北支那로부터滿鮮으로퍼저 本邦方向은 氣壓이낫고 太平洋上에는 低氣壓이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滿洲、朝鮮은晴 內地는晴後不定으로 一般으로晴穩하다

豫報 今夜와 明日은 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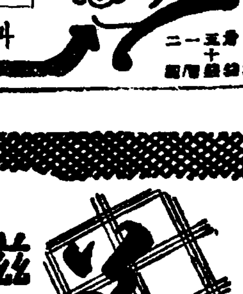
昨日最高 六度一 同最低 零下二度六 今朝最低 零下三度二 今日正午 四度八

回効散 → 頭痛 은 齒痛 과 頭痛 에

効力速함에 郡判잇는 回効散은 神經痛에도 非常히 잘드는다고해서 近來 어느藥店에서도 평장히 잘팔린다고 합니다

論보다證據한번 試用해보십시요

本舖 東京 大阪 森田製藥所 全鮮藥店에잇슴



自動車 運轉手資格試驗完成! 學科實習完備! 最高權威! 朝鮮總督府認可 自動車學校 京城府太平通 京城 入學規則發送 來問歡迎

家具 事務用椅子卓子書籍函 特價陳列販賣 各種御注文應 三丁目 本町 電話本②五○九一 根[illegible]商會

採用 保險勸誘員數名採用 人來談 京城本町一丁目 [illegible] 郵便所

朝報案內

時計士養成 通信教授의便도有함 三個月卒業 京城府北阿峴町三番地の五○號 京城時計修理院 學則要三錢切手

諸島獸高價買入 山口屋小動物園 東京下谷入谷三九○

寫眞 亜細亜 京城鍾路(西通町入口) 電話光化門二一○二

실색사진 · 기가당사 · 균수실 · 文化ヤン · 꽃재봉사 · 手藝百般 · 會商永吉 · 京城府寬勳町一四四 · 振替京城二八一七 · 電光㊂二一七四

釜山의競馬 開催日 三月十九日(土)二十日(日)二十一日(祭) 二十六日(土)二十七日(日) 四月一日(金)二日(土)三日(日) 勝馬投票券一回 十圓 五圓 單複併用

和信萬年筆 附金許特 商標保險證付 和信本支店・各地連鎖店販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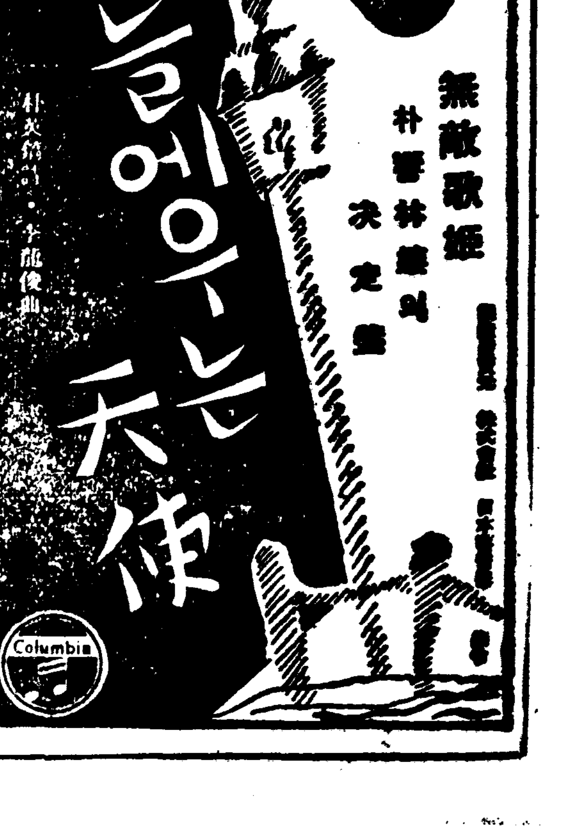
五千年歷史漢方醫藥 創業 明治二十五年 世傳秘方 百種靈藥・蔘茸唐草材 藥種貿易 製藥診療 平壤鍾路 法橋局 電話長一九六五 一九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三八七四番 特設 한방의약문의응답 漢方醫藥問議應答 處方精製 月報進呈

黃州春光園藝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一年五十名 ▲特典 本校卒業生은大阪府立園藝學校四學年無試驗入學 ▲出願期日 三月二十一日까지 ▲試驗日字 三月二十四、二十五日 ▲出願 昭和十三年三月三十一日 ▲考査 昭和十三年四月一日 ▲六個月卒業 ▲學則請求要三錢切手 京城府蓮建町一九五 電光二七八九

生徒募集 京城測量技術講習所 ▲科目 土地測量學、測量規定、法規、計畫、製圖、伸縮製法、數學、滿洲語、實習

第一學年生 約四十名 朝鮮總督指定 東萊日新女學校 生徒募集 出願 三月十五日限 試驗 三月十九、二十一、二十二、二十三日(詳細來問)

無試驗入學 宣川中學講習所生徒募集 ▲補習科、普校五六學年科目補習 中學科、中等學校第一學年科目修業 ◇出願 四月十日限 ◇開 四月十一日午前十時 (詳細三錢切手添付照會) (平北宣川邑)



東北滿洲의表玄關 日本海時代到來

群雄割據의事業家活躍으로 開拓되여가는各業界

咸鏡北道의 事情은 벌써 그實傳期를 버서나서 着着 그實踐期에 드러가고 잇다는 말로 簡單히 表示할수잇다 따라서 그沿革이나 財源及產業이나 交通貿易及港灣等에對한 紹介는 屢次 本紙上에 連載한바잇기에 여기에는 다만 이地帶를 土臺삼아 어떤 事業이 個別的으로 存在하며 人物들이 活動하고잇는가를보고 다시 咸北의 現狀及將來를 數言으로 要約하기로한다 그런데 더구나 滿洲國이 新興한 今日에잇서서는 咸北의 存在性이 重要하야저서 日本海는 압흘로잡고 滿洲를背하야 帝國의 大陸을 뒤스둥으로알게쯤 情勢는 一變하얏스므로 아므로 優秀한 手腕과 力量과 財力을 가진 事業家가 出現活躍만하면 咸北의 將來는 참으로 놀만한것이 잇슬것이다

數年前까지도 北滿邊疆에서 버림을받든 咸北이 今日內外에喧傳되는 國際的要衝地帶로 化身한 推進力은 勿論滿洲事變을契機로한 國際情勢의 變遷에따른 것이다 日本海時代의 招來가 곳그것이다 日本海時代가 高調되지 오랫스나 滿洲國의 誕生이시는 實現될수업섯다 어에 滿洲國의 健實한 發展은 오직 日滿經濟"警備""强化"에 依存하는바되니 日本海"코ー스"는곳 日滿"루ー트"의 最捷徑또最緊要한곳이로 自他가 共認하는바되고 東北滿洲의 唯一한 玄關으로된咸北은 日本海를 前庭으로 삼고 압으로는 航路로 뒤로는鐵道로 物貨를 吞吐하고 人文을 媒介하는 地理的經濟的要地가되고따라서 各種產業亦是이에 簇出하야 어느게나 特性잇는發展을보여주고잇다 今日의咸鏡道는 옛날의 그것이 아니지 벌서오랫다 資源으로는 朝鮮第一에가는 것만도 石炭 鐵 林產 水產을 가젓고 產業으로는 原始形態로부터 三段跳하야 最近代的體裁로 改偏되는 過程에잇스며 內的으로는 北朝鮮三港을 中心으로한 建設問題와外的으로는 蘇滿國境을 接觸하야 國際問題가 恒常이곳에 깔여잇스니 이가튼 地帶를 朝鮮에서 다시 차저볼수잇스랴?

只今은 超非常時로 各種事業의 體裁나 人的要素에 對한客觀的 要求가 달러젓다 그러나 咸北建設이란 遠大한 國策的見地에서 나오는 建設事業이니 어곳의 經濟界나 事業界란 獨特한 方式으로 恒常向上發展할것을 미더 疑心할 餘地가업다 規模의 大小는 莫論하고 여기에 收錄하는 各人各色의 事業은 모도가 順調로운 發展을 보것뿐이고 그經營者되는분들도 亦是立志傳에 오를特色이다

이 多數를 占하고잇다 新興咸北은 부르짓는다 有爲한 人材여 輩出하라! 着實한 事業家야 簇生하라! 新人物, 新事業을 抱擁한 雅量을 가준곳이 新興咸北의 特

敎育界에烽火든 姜仁伯翁의功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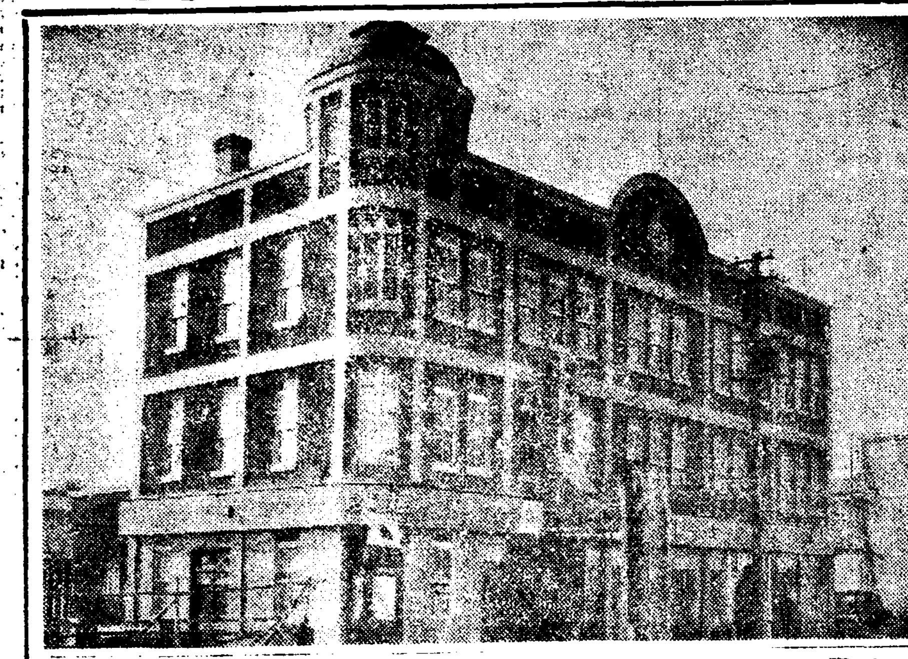
淸津府水南洞에 姜仁伯翁이 淨財幾萬을 困窮하야 悲運에빠진 末陸學校를 救濟하야 無生人처고 이어서 私立普通學校로 昇格시켯다는 事實은 넘우도有名한 事實이기에 敢術할必要조차 업거니와 翁이끼처준 敎育界의 快事는 坊坊曲曲에 그反響이波及하야 이를契機로 敎育熱이高潮되얏다는 點을생각할때 그功績은 날이갈사록 鮮明하게우리의記憶에 나타나고잇다

『나는못배웟스니 恨이다 後生들이나 나가튼 恥辱을免하게 해야한다 財產은 貴重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子孫에게 相續만해서는 貴重한價値가업다…』 이것이 姜翁의敎訓이라면그人格과志操를 짐작할만하다 只今 病中에呻吟하는 翁의健康이하로 速히 完癒하기를바라는바이다 (寫眞은 姜仁伯翁)

篤實한實業家 梁弼龍氏

沈默을 지키는가운데서 날래商略을 휘두르는 實業家에梁弼龍氏가잇다 氏는 距今十五年前에來淸하야 終始一貫으로 水產業에從事하야 現在의 土臺는 자못確實하야 海產物貿易商中의 白眉요 中堅漁業家로서의 手腕과實力은 自他가共認하는바이다 氏는資性이 溫厚篤實하야 人格이 圓滿한데다가 普通사람以上으로 沈默을 지키는것이 獨特한 性格이며 同時에氏의信望이두터운所致도된다 京畿道開豐郡에出生地를둔 氏이니만치 北朝鮮黃金時代에 그中心地 淸津에자리잡고 松都商人의 秘策을 縱橫으로 휘두른다면 얼마나한 前程이 展開될것인지 測定하기 容易한일이아니다 오로지氏의大成을바랄뿐이다

躍進하는丸見百貨店 清津商界를리ー드 店主는青年吳圭燮氏



大淸津의"메인스트리ー트"에 巍然히聳立한 洋館三層에 時代의寵愛를 담북밧고잇는 和洋百貨를 盛水無漏하게 蓄積한곳이 淸津第一의稱號를받는 丸見百貨店이고 그主人이 杜門不出하기로有名한 靑年實業家吳圭燮氏다 同百貨店은 昨年여름에資本金二十餘萬圓으로 鐵筋콩크리ー트 三層店舖를 新築하고 創業한지 一周年未滿에 벌서確乎한商權을 樹立하야 前年期決算에 相當한 業績을 나타내엿다 店主吳氏는 刻苦十餘年에山戰水戰을 모두겪거 練磨된商術을 移植하얏스니 朝鮮人商工界에서 보기시운 龍頭蛇尾의結果를가장 忌避하야 어데까지든지 堅實第一主義를取하야 堅實第一主義經營方針을 確하고잇다 商品은 直輸移入하는만치 價格이比較的安價요 더욱信賴하기에 足한바이잇다 店主의 確乎한經營方針과商人으로서의 節度가同店을 盤石우에 安置할것을 確信한다 新年度부터는 三層에 食堂까지를 兼營할計劃下에 目下準備中이라하니 이로써淸津도都市風이한층더나타나보일것가트다 (寫眞은 丸見百貨店)

理想的建築은 信用잇는 金光組에서

本店 圖們市 支店 淸津府浦項洞

立志出鄕廿年에 錦衣還鄕할 梁泰斗氏

男兒가 뜻을품고 鄕關을나와 뜻을 이루지못하면 죽어도돌아가지안는다는 옛사람의敎訓을그대로 實行한 한사람에 淸津漁業家梁泰斗氏가잇다 氏는距今二十年前에 屋南東萊를등지고 山설고물선곳 이곳二千里北國의 漁村에居處를 장올때 東海蒼波의 荒漠한것과도가티 그의心情은依支할곳이업섯다한다 몃번이나마음을 鼓舞시켜가면서 萬頃蒼波에 呼訴하야生途를 探求한結果 赤手空拳의 梁氏에게는 至誠이면感天이라고今日과가튼 累萬金이 모아진것이니 이어찌 貴重하고 또구든決心의 結果가아니랴

氏는天性이 溫厚하고 沈着도 忍耐性이 豊富함으로 아프로水產界에 雄飛할날도 멀지안흘것이며 氏의平生所願인 錦衣還鄕도 오직時間問題로되여잇다

溺死의幼兒에 輸血의義擧 至誠醫院李種完氏

어느날 熱病으로 入院한幼兒患者가 거의 死境에 이른것을 보고 唯一의蘇生할길은 輸血에 잇다고 診斷한 李種完醫師는 血液型이 自己와幼兒가 同一하다하야서 지체안코 注射器를대여 自己의 鮮血을뽑아서患者인 幼兒에게 輸血한結果 溺死狀態에잇든幼兒가 完全히 蘇生한 일이잇다

醫業이 職業化하고 營利化한 今日의 狀態에서는 좀처럼 차저보기어려운 義擧를 敢行한것이 李氏의참다운 醫師道요 이를適하야 氏의眞實性을 如實히 現示하기에 足한 好箇의資料가 아니고 무엇이랴 氏는忠南唐津

新興咸北의事業과人物 (其一)

關北商界의至寶 雄基의東富商會

雄基의東富商會! 이얼마나關北實業界에 貴重한存在랴 過去와現在는勿論 今後로 同社의成長이 全關北人의關心을 끌게하는所致는 무엇인가 그는오로지 同社의 우렁차든 歷史 赫赫한業績과및 關係人物들의 敦厚한信望때문이다

同社는 距今二十有三年前 富寧郡富居面龍湖洞에서呱呱의聲을 외첫스니 當時實業界에名聲이籍籍하든 故辛亨甲氏의 創業인데 遺志를바더 그長者良極氏가經營에當하얏고 其後다시組織을擴大强化시켜 資本金六十萬圓의株式會社로 變更하고 營業科目으로 漁業, 海陸物產委托販賣, 鰮油肥製造業, 滿洲國特產貿易等을 整齊하고 昭和十年부터는 巾着網漁業에 着手하야 有數한 業績을내이고잇다 特히 그中에도大豆貿易에잇서서는 朝鮮人商界에서는 볼수업는 大規模의 取引을하고잇다 그러면 內外人이羨望하는 同社를 今日과가티 堅固한 礎石에 올려노흔것은 누구냐 創立當初로부터 支配人으로 現職에잇는 朴俊鎬氏그사람이다 氏는 우리社會에서 어데보기드문 事業家로 大膽하고 堅實하고 또 百折不屈의 勇者니 가진 艱難辛苦를 克服하고 今日의 大成을 이룬것도 氏에게는 意外의 일이 아니라 하겟다

同社는 아프로도 洋洋한 前途를가젓스니 北朝鮮時代에 雄飛하는 三港中 一인 雄基港을土臺삼아 第二段의 飛躍을 劃策하고잇다 우리實業界의 至寶東富商會를 運轉해가는 諸氏는더욱과감…

▲取締役社長……[illegible]
▲取締役支配人……[illegible]
▲取締役……[illegible]
▲監査役……[illegible]

寫眞藝術의最高峰 松友寫眞館 淸津府浦項洞

城津의名醫 金聲宇氏의活躍

距今七年前에 城津港에서 開業한以來로 日進月步하야 確乎不拔의 土臺와 聲望을차노흔 金聲宇氏의 手腕은 무엇인가 氏의練磨된 仁術이其一이요 敦篤한 信義가其二요 恒常謙遜하고 親切한것이 其三이라하겟다 氏가成功한 外叙로나 充實한 力量으로보아 刀圭界에 壓倒的 地步를 占한것은 發言을要치안는바이나 城津社會에서 氏의存在한것이 斯界에局限될것이아니다 私立中央幼稚園設立者로 또는元山孤兒園에 多大한援助를 하얏다는點으로보아서 敎育界에適大한 抱負가 裏藏되고 다시 社 … 鍊에 『메인·멤버ー』가되고 推進力이되도록 氏로하여금 公人을만들자는데잇다 周圍는扶助를 不惜하여야하고 氏自身은熱을도도고 힘을養할時期가아닌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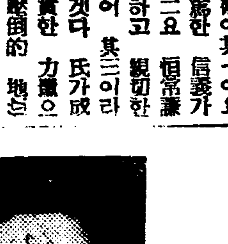
公職者의最高峯 民衆의期待多大 中樞院參議 黃鍾國氏

小規模의 貿易商으로부터 府會議員으로 道會議員으로 다시 中樞院參議로 三段跳躍을하야朝鮮公職者의 最高峰을 征服하야 咸北의代表的人物로 登場하엿다가 數百萬의巨財까지를 兼備하게된 黃鍾國氏의 存在를보고듯는이는 누구나 그榮達의順調롭고 또急速함에 驚愕안는이가업다 그러나 氏가今日의 大成을 보기에 이르는經路를 詳細할때에 血汗點綴한 그裏面史가 얼마나 우렁찬 現實的敎訓을 後輩에게 끼처주고 잇는가를 엿보기에足하다

艱難한 現實의波濤를 헤처가며 一定한目標下에 百折不屈의 努力을 해온것이 今日에볼수잇는 結實이라면 그不絕의努力을 今後如何한方向에 如何한方法으로서 第二段階를 創適하는나하는點이 또한一般의觀矚을 集中시키고잇다

實業界에 觸手하는나 文化事業에 投身하는나 或은 同時에 두陣營을 築城하는나 하는것이 氏의 當面한 課題라고 一般은 보고잇다

實業界도조코 敎育界도조타 두가지면 더욱조타 그는氏의實力이그만큼 巨大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어느길을 찰는가를姑捨하고 氏는오로지 大海와가티모든面과角을 完全히抱容하야 이量的擴張으로써 氏自體로는 現在以上의 發展을促成할것이요社會的으로는 倍前의 裨益을끼처주기를 切望하는바이다



(寫眞은 黃鍾國氏)

刀圭界의覇者 名望노픈德濟醫院

李周泳氏가 德濟醫院을淸津府內浦項洞에 開業하기는 再昨年二月이다 當時는雨後에竹筍자라드시 各地에몰려드는 刀圭界의 無數한將卒들에끼여 어느期限은 相當히 苦戰을하얏스나 氏의仁術과聲望은 차츰群衆을 리ー드하야 新市街에서는勿論 全淸津에서도 第一慇懃한醫院으로 올려안고마랏다 氏는다시 輻輳하는患者의便宜를爲하야 水南洞에 分院을設置하고 新築한 本院이 狹少하게되야 附近에別館까지를 設備하얏는데 『렌트겐』科를爲始하야 近代的醫院으로서의 何等 遜色이업는 施設을 完備하얏다 擴張에따라서 京城帝大醫院에서 臨床에精勵한 李泳源醫師를招聘하야 溫厚篤實한 名醫宇문이 仁德淸衆의聖業에 邁進하고잇다 (寫眞은 德濟醫院本院과 李院長)

…으로 일지기 北大醫學部를 優秀한 成績으로 [illegible] 內科에서 專攻하야 [illegible] 차조다음 昨年에淸津에 [illegible] 가되고 마랏다

氏는 天性이 [illegible] 하기로는 [illegible] 仁術 또는 [illegible] 으로 하면 不出院하에 淸津刀圭界를 『리ー드』할것으로 보히 一般의 [illegible] 고 (寫眞은 李[illegible]氏)

新興關北의巨物 今後發展에囑望 代表的人物崔雲鶴氏

淸津아니 咸北社會에서 가장 有望한 人物을 物色할때에 그第一人으로나 第二人으로나 事業家的手腕으로 또는 그實力으로보아서 壯年實業家 崔雲鶴氏의存在를 等閑할수는 업슬것이다

오로지 明哲한 頭腦와 愼重한 思索、敏活한 判斷과 미들운한實踐에 才氣縱橫하는氣風까지를 兼備하얏스니 어찌人物難의 新興地에 異彩를 아니낼수잇스랴 以上은 氏의 人格 乃至는 社會的信望의 一端에不過하고 이보다 重大한것은 實業界에 잇서서의 氏의存在이다

氏는 二十餘年前 木材業에 精進한結果로 現在는木都會寧을中心으로 製材業의 그實力이 떳떳이서 道內有數의巨商인데다가 近者에는 水產과 運輸業을 兼營하는 淸津東一商會의株式太半을 所持하고 事業의重點을 木材로부터 水產業에로 移動시키고잇는感이不無하다

事業家로서의 氏의貫錄을 가즌氏의先見은 여기에서 엿볼수잇다 『모든事業은 一定한限度가잇다 이限界線을 超越하고 敏速한 運轉을 하는것이緊要하다』

社會的으로는 中心人物이요實業界에는 巨人的存在를兼해서衆한 氏에게 一般의期待는두엇이라 업다ー即 淸津建設에는咸北

會人으로서의 氏에對한 城津社會의 輿論과期待를들때 이地方에 업지못할 가장有望한人物이다 … 아로 氏의大成과아울러 一般의 期待가 合致되기를 苦待한다

水產界의元祖 安村賢太郎氏

淸津水產界에서 元老면사람을 꼬불때 반드시아흡다투는 人物에 安村賢太郎氏를들게된다 氏는德島縣出身으로 距今二十餘年前에 淸津에건너와서 淸津開拓者의 한『멤버ー』로서 水產界에 投身하야 艱難辛苦를 겪거가며 七轉八起하야 今日의大成을이루엇다

氏는일즉이 府會議員等의公職을 屢次거처 現在는府議員과水產組合幹部로 엿는데 天性이溫厚하야 事業家로서의名聲이놉다 朝鮮人을 主로하는 中小漁業界에 만흔 理解를 가지고 同情을 베풀엇도 非一非再하니氏를 불러『聖』이라하는 所致도 오로지 圓滿한人格과 公正한 그處世에 基因하는것이라한다 淸津水產界의 重鎭일뿐아니라 또는 權威者에 對하야서도 重要한지 氏의存在는 淸津으로하여금 크게 期待를갓게한다 (寫眞은 安村氏)

靑年實業家 楊春元氏陰德 敎育事業에貢獻

『나는世上사람에게 알려질까바 걱정한다ー』即世上사람에게自己의 功績이나 存在를 알리지안는가운데 自己의할일을 하겟다는 뜻이니 이것이곳 茂山의楊春先인가하는 生活이오 讚歎의 그人格의全部를 彷彿케하는 好個의 寶言이다 氏의本意는 敢言하나 氏의 陰德을 그대로 讚歎할수가는 너무도 渺渺한바잇서 氏의 本意에 多少반하기는 하지만 한다 氏는 父親의 遺志를받아 茂山郡(勸農會)에서明倫學院을 經營하고 茂山郡新站에 私立學校를 有志와 協同하야經營하는바에 各方面에 相當한 物質的乃至는 精神的援助를바치고잇서 本業인 木材商의發展과아울러 敎育事業에도만흔 貢獻을 가지게하다

大規模多方面으로 產業朝鮮의자랑 金基德"코체른"의偉容

『地方的』어아니요『朝鮮的』으로 展開하고잇는 金基德氏의事業網과人格을 咸北版에서 抄記한다는것은 瞞越上 考慮할點도 不無하나 氏의出生地가 淸津이요 그事業의根源地가 咸北이오 現在도 그事業의一部가 咸北에 土臺잡고 잇슬뿐외라 咸北人이 氏에게 얼마나한期待·熱望ー을 가젓는가 하는點을參酌하야 그巨人的姿態의 一部에 一般에게서 期待밧는 願望의一端을 玆에列擧한다

(一) 實業界

▲金基德商店
本店ー淸津府新岩洞
支店ー京城府南大門通二
▲茂山製材所
工場ー茂山邑內
支店ー雄基邑
出張所ー大連市
▲金元商店
本店ー西水羅
營業科目ー漁業、鰮油肥製造業
▲株式會社東富商會
本社ー雄基邑
營業科目ー漁業、水產加工業及貿易商
▲砂利會社
本社ー京城府
▲化學工場(計畫中)
工場ー咸北

(二) 敎育事業

▲漢城商業學校(京城)
▲淸德普通學校(淸津)
▲其外에 鑛山、農場等散在
(以上 各事業에 投資總額 二百萬圓을突破)

氏의出身地오 事業地인 咸北에서좀더 規模가크고 現實的要求에 合致되는 文化事業이 氏의손으로 樹立되기를 願한다 이미오래되엿고 또氏의 身邊에서 事業網을 運轉하고 잇는令弟金基道氏와 令息金元甲氏에게도不發彈(?)이 秘藏되고잇서 어느때巨彈이 發射되야 一般을 歡喜시길지 자못궁금하다

(寫眞은金基德氏)

咸北實業界元老 沈勇의好紳 辛良極氏

淸津實業界의元老格으로 同時에 咸北屈指하는 巨商을 들때 누구나 辛良極氏를 沒却할수는 업스리만큼 辛氏의 土臺는 堅陣이요 實力이뚜렷하게 周圍를 威壓하고잇다 氏는實業家로서의 天稟을 父親에게서 繼承함인지 百戰練磨된 그事業哲學은他의人에게서도 차저보기드문 忍苦、鍛鍊、沈勇、緻密로가득찬信念의結晶이다 貿易商과水產業에從業타가 現在는巾着網漁業에專力하야 年年數萬圓의 純利益을 내고잇고 一方遠近에 投資한土地도相當히 厖大하야 氏의確實性잇는 資產的土台는 氏의財界에잇서서의 聲望을 더욱 도다주고잇다 氏는 일즉부터 朝鮮人商議의代表格으로 淸津商議의 副會頭란 重任을 띄고만흔功績을 나타내인바도 잇섯스나 只今은 協同油脂會社의 重役에잇슬뿐이요 除外의公職을차즘整理하고따러서水產業을 除外한他事業은 차츰整頓하는傾向이보이고잇다 氏에게 남은問題는 淸津에 어떠한 貢物을 남겨주는냐하는데 興味를끌게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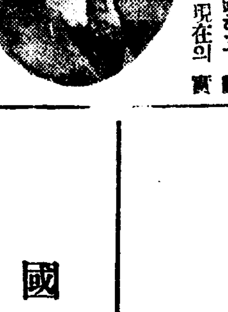
水產界의麒麟兒 衆望밧는 黃龍轍氏

新興淸津의 潑剌한氣分을그대로代辯하는듯이 快活하고 또大膽한데다가 仁厚한人格과 識見을가즌분이엇스니 그가곳數年來로新然頭角을 雲表에나타내인 黃龍轍氏다 氏가 郊外 西水羅洞에자리나 距今十六七年前부터 東海의성난波濤를 달래가며 가진艱難辛苦를 물리치고 巨財數十萬圓을 蓄積하야 今日의盤石우에 安座된것은決코 偶然한事가 아니요 오로지氏의 事業家的天稟에 依하는 當然한結果라하겟다

視野를 돌리켜 氏의 社會的關係를보면 일즉이 西水羅洞에 敎育機關이업슴을 慨歎하야 私立學校를 세웟고 이어서 昨年度에는 同校에 數萬圓을 投擲하야 私立普通學校로 昇格시킨것을 筆頭로 敎育界나 公共事業界에 對한 氏의 理解乃至熱誠이란 實業界에서는 차저보기어려운바잇다 明哲한洞察力 雄大한 抱擁力 活潑한 社交性等을 兼備한 氏의 巨人的存在는 今後加一層 急速度로 伸長될것을 미더疑心치 안는바이다 (寫眞은黃龍轍氏)

淸津府民의健脚 安全自動車商會

府民의健脚! 團體的인 車輪의 廻轉하는곳에 躍動하는 淸津의 面貌는 나타나고잇다 街頭에奔러지는 混線을 어리저리누비면서 疾走하는自動車는 뉘것이第一信用잇고 第一安全한이만코또 氣分어조흘까? 赤是安全이第一이겟지ー新興氣分어 橫溢한都市에서의 交通機關의使命은 더욱 重大하고 또 그經營方針如何도 一層苦痛스러운것이다 어려운地帶에서 어려운事業을 갈등가지 運轉해나아가는이가安全自動車商會의 靑年實業家張雲松氏다 氏는 恒常親切、迅速、安全을第一의『못토ー』로 삼고 언제나 乘客本位를앞세우다 따라서 異彩잇는『써비스』가 經營二年만에 他를 壓頭하고 斷然頭角을나타내엿스니 現在의實力을 드려다보면 今後가 高級車로 最新型車ー이가튼 整頓된택시ー』는그實例를찾기힘든다 營業에 浦項洞에 支店營業所를 設置하고 總臺數三十餘臺에 六十餘名의 從業員을 動員시키고 市內를 東馳西驅하는 光景은 一邊의 壯觀이요 同時에 希望에찬 氏의 前途가 如實히 窺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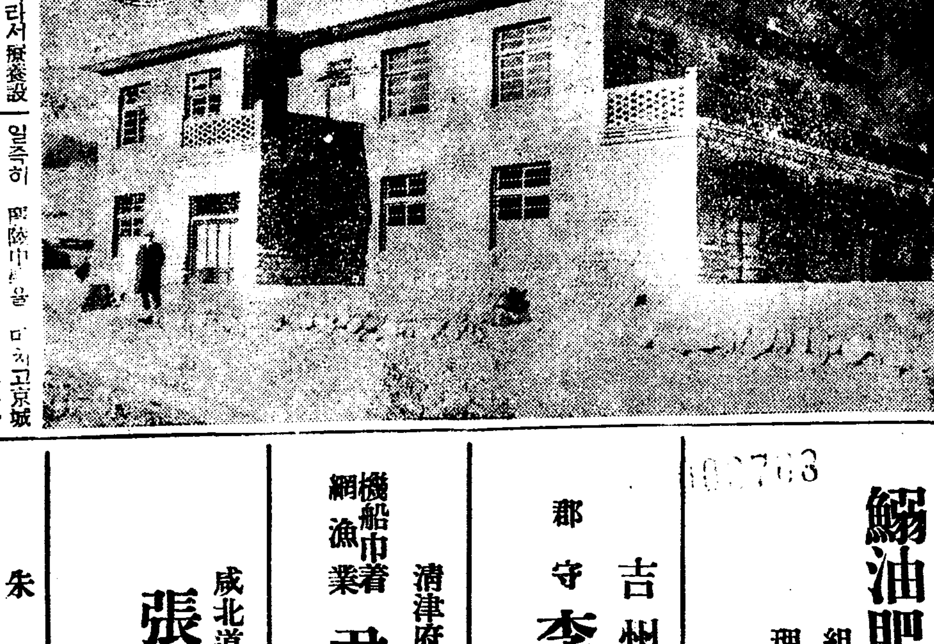


(寫眞은 張雲松氏)

名勝地朱乙溫泉에 大規模의療養院 靑年醫師 李寅耿氏事業

咸北이 가지는 자랑꺼리의하나로 朱乙溫泉은 넘우도有名하게 알려진事實이다 勿論溫泉이라면 療養地를聯想하고 따라서療養設備의 必要를늣기는것인데 朱乙溫泉에 이重任을獨擔하는이가朱乙醫院長 李寅耿氏다 氏는 本籍을 平北宣川에두고 일즉히 醫院中學을 마치고京城醫專을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多年間臨床에 經驗을 싸은다음 지난昭和六年에 朱乙溫泉에 着眼하야 鴻志를 實踐에옮겻다 開業以來地方民의 信望이두터웁고 特히外科에는 神秘的手腕을 發揮시키고 잇다는데 그中에도肛門外科에는 堂堂한權威者로 指稱된다

氏는다시 昨年에 溫泉에朱乙醫院溫泉療養所를 三萬餘圓工費로 新設하야入院室十七에 諸般施設을 完備시키고잇서 秋毫도 朱乙溫泉을 찾는客에크다란 福音을 約束하고잇다 朱乙溫泉의 發展과 療養所의 그것은 언제나正比例될것을 잇게한다



(寫眞은朱乙療養所와李醫師)

祝咸北紹介版發行

咸鏡北道

淸津漁港 漁港工友會

國際運輸株式會社 淸津支店 羅津支店 雄基支店

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藤原銀次郎

咸鏡北道 鰮油肥製造業水產組合 組合長 李聖根 理事 木村寬藏 史七鉉

吉州郡廳 郡守 李雲鵬

淸津府敷島町 機船巾着網漁業 尹時圭

咸北道會議員 張德相 淸津府浦項洞

朱乙 李一南

東拓朱乙林業所 大阪安宅商會 專屬組 陸海運送請負業 (嚴) 嚴泰燮組 電話一一九番

淸津府 鏡城郡羅南邑

淸津商工會議所

淸津府浦項洞 同仁醫院 院長 愼東紀

鏡城郡梧村面事務所 職員一同

社團法人淸津勞撥社 主事 金銀洙

會寧 豆滿江林業株式會社

咸北自動車株式會社 本社 淸津

漁大津 漁業 鄭錫瓚

漁大津 公醫 安永根

漁大津 松田季治

咸鏡北道鏡城郡 職員一同

淸津金融組合

朱乙溫泉 龍泉館 主 崔貴鳳

漁大津 漁業 金斑燮

漁大津 金利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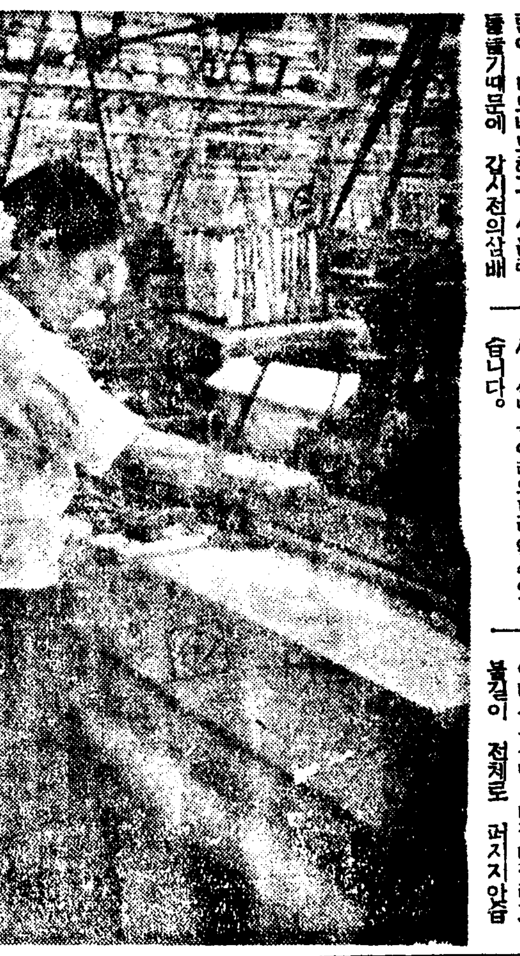
漁津 崔承萬

漁大津 金東燮

漁大津 漁大津自動車部 金[illegible]鎬

진짜와 섞어짠것은 어떤점이 다른가!

물에대워보고물에축여보는법 왼만침해서알수잇다



정부의「스테이플파이버ー」혼용규정에의해서 인제부터 순모명을 살수업게된다는바람에 너도나도하고 사들라들기때문에 갑시전의삼배갑이나 뛰어오르고 마럿습니다 양복감은 볼지갑시 싼것이아닌만치 요새무명처럼 그러케헐문이엇시 오르지는 안엇습니다만 그러라고할지라도 요즈가튼이점이라면『스·푸』석근것을 순렬로짠것이라고 속여파는장사치들이어디고도 할수업습니다

◇

섞거짠것이거니 하고알고서산다면 몰라도 나종에가서 속은것을 알때에는 사람마다 분한생각이 안날수업습니다 그럼으로 공업전문가아닌 우리들로서도섞거짠것은 어떠타하는것쯤은아라두어야 하겟습니다

◇

『스·푸』와 순모로된것을 섞거짠것과 순모로만짠것을 구별하는데잇서서 손으로 만저보는 감촉만으로는 도저히전문가로서도 알기힘듭니다.

두가지의구별

문저 순모로짠것과『스·푸』를섞거짠것을 우리들이 감별하는데 제일간단한법은 그 옷감의 여푸로 건너간실과 기리로 건너가는실을 푸러서 석냥불에태워보면알수잇습니다.

만일 순모로짠것이라면 동물성의(動物纖維)이며 담백질이므로 잘타지를안코 불이다은부분만 바작바작타고 불길이 전체로 퍼지지안습니다.

『스·푸』를 섞거짠것은 섞거짠분량에따라 다른것이지만 어떤것이거나 순모로 짠것파달라 바작바작하면서 타는기운이 적고『스·푸』가 만히섞거잇스면 잇는그 만큼불스길이 잘붑니다. 그런데 만일 순『스·푸』로 짠것이라면 평균한속소로 화하면 속히 타버립니다. 즉『스·푸』는 나무의 섬유로된것이니까 조히타는것과 결국마찬가지입니다. 또 혀이타는것과가튼 고리타분한 냄새가 적은것이 한특징입니다.

물로시험하는법

물로태워본는대신 물길을 [illegible] 하다든지 [illegible] 해지고 잡아다려보면 됩니다. 순모로된것에 비해서『스·푸』섞거짠것은 느리나 순렬이 순모의 반밧게안됩니다 방수가공(防水加工)한것은 강합니다만

『가성소다』시험

양밥에서 五퍼ー센트의가성소다(苛性曹達)용액(양재물다물을 맨드러팔리고 해서 거기에 헝겁을 푸러해처 닥거삶어 봅니다 그러면 순모로짠것이면 약이십분지나는동안에 다녹아버립니다 그러나『스·푸』는 그대로 남아잇습니다.

무명으로짠것과『스푸』섞거짠것

그다음에는 순무명으로짠것파『스·푸』를 섞거짠것의감별법은 역시 물에축여잡아다려보면 잘알수잇습니다. 순무명에비해서『스·푸』석거짠것은 느러나는힘이 아주적습니다. 그러나 그여시『스·푸』를 석근정도에따라 강약이 또한달라질것은물론입니다.

(사진ー우의것은『스·푸』직조 아래는 양복처럼 맨드러내는『스·푸』섬유)

지·차·리·우

맹수를산채로 잡는독까스총

이런총은 벌써 누가맨드러 내엇서야 할겝니다. 호랭이가 덤빌때 한방『탕』쏘홉니다. 호랭이는 독까스냄새를 맛고 그만 까무러칩니다. 이때에 사족을꽉 묶습니다. 아주섭지안어요?

主婦看護讀本

알는사람간호잘하는법

××××병원에서도별것업스니 이만것은아라두십시요××××

④ 女醫 李聖淑

간호란무엇?

옛날부터『첫재간호요 둘재로는약』이라고 말하엿습니다 의학이대단히 발달된금일에 잇서서도 약의힘하나로써만 고칠수잇는병은 그수가적다고 하여도 파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알수가잇슬것입니다.

질병을當할때 의사는 먼저그병이 어떠케하여서 생겻나를 살피는것입니다. 즉진단을 틀림업시될수잇는대로 빨리붓처서 금후의 치료방침을 세우도록 노력하는것이 첫재임무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그병상의 변화를세밀하게 판찰하여서 가장적당한방법으로써 인체가가진 스사로의 건강을 회복할라는 힘을 도와주는데 지나지 안습니다. 그럼으로 좀더큰 견지에서 본다면 의사의 하는일도 결국은『병을보살핀다』는 넓은범위에잇는한가지의 태도에지나지안는다고하여도 파언이아닐줄압니다.

지금 이의미로써 말한다면 병을 간호하는 사람의 책임 즉 간호라는것은 의사를도와서 혹은 의사와 협력하여서 병자의 고통과 번뇌로부터 그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구원해낼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힘의 발현이라고 하지안호면 안될것입니다. 또 다른 일면으로본다면 간호에 종사하는사람은 조석으로될수잇는대로 병자를 떠나지말고 그병세의 변함을 세밀히 보살피는 동시에 병자에 대해서는 큰 보호자인 동시에 또한 가장 가가운 위안자가 되어야할것입니다.

의사가 병자에게서 신뢰를밧는지 안밧는지는 그 치료상에 대단히 중요한것은 물론이려니와 더욱이 간호하는사람이 알른사람에게서 신뢰를 바드며 안심 하고서 맛길수 잇다는것은 극히 필요한것입니다.

市內各女子中等校 今年 入學試驗問題 ③

京城女高普

算術科（其ノ一）

(1) 7ハ3ノ何倍カ。

(2) 次ノ比ヲ整數ノ比ニ直シ、出來ルダケ簡單ニナセ。

$1\frac{1}{7}:16$

(3) 次ノ步合ヲ100ヲ分母トスル分數デ書ケ。

2分5厘

(4) 次ノ比例式ハ正シイカ正シクナイカ。

$\frac{1}{2}:\frac{2}{3}=9時:15時$

(5) 次ノ式ヲ計算セヨ。

$1\frac{1}{9}+1\frac{2}{3}\times2\frac{2}{15}$

(6) 次ノ式ヲ計算セヨ。

$17-(2\frac{1}{8}-1\frac{1}{4})\times3$

(7) 次ノ式ヲ計算セヨ。

$(8\frac{1}{3}+\frac{3}{4})\times\frac{4}{9}+8$

(8) 次ノ式ヲ計算セヨ。

$7\frac{1}{2}-3\frac{3}{5}\times\frac{2}{7}\div\frac{3}{14}$

(9) 次ノ式ヲ計算セヨ。

$(\frac{1}{3}+2\frac{5}{6}+10\frac{1}{2})\div(14\frac{2}{7}-3\frac{4}{5})$

(10) 次ノ式ヲ計算セヨ。

$(46\frac{3}{5}-37\frac{5}{8})\times(34\frac{1}{2}+66\cdot75)$

算術科（其ノ二）

次ノ問題ノ式・運算・答ヲ書ケ。

(1) 二ツノ矩形ガアル、其ノ縱ノ比ハ5：6デ橫ノ比ハ12：10デアル、面積ノ比ヲ求メヨ。

(2) 金75圓ヲ3・4・5ニ比例スルヤウニ分テ。

(3) 7000ダケノ字ヲ1頁ニ8行、1行ニ13字ヅツ書クト何頁ニナルカ。

(4) 圓ノ周ガ直徑ニ對スル比ハ22ト7ノ比デアルトスレバ直徑ガ5・25糎ノ圓ノ周ハ幾糎カ。

(5) 人足4人デ賃錢120圓トルニハ25日働カネバナラヌ、8人デ賃錢192圓トルニハ幾日働カネバナラヌカ。

(6) 米ヲ車デ運ブノニ1回ニ18俵ヅツ積ムト36回カカル。此ノ米ヲ1回ニ6俵ヅツ多ク積ムト何回デ運ブコトガ出來ルカ。

(7) 合計高ガ2172圓60錢デ步合ガ6分5厘デアルト元高ハ何程カ。

(8) 金貨ハ金ト其ノ$\frac{1}{9}$ノ目方ノ銅トヲ熔カシ合ハセテ造ル幾パーセントノ銅ヲ含ムカ。

(9) 或人ガ米128klヲ買ツテ仲立商ニ5分ノ口錢ヲ拂ツテ手取金21888圓ヲ得タ、1kl幾ラニ賣ツタカ。

(10) 或汽船10株券4枚ヲ持ツテ居ル人ハ或決算期ニ配當金幾ラヲ得ルカ。此ノ會社ノ1株ハ50圓決算期ハ年2回デ此ノ期ノ配當率ハ年7分デアル。

國語科

一、左ノ文ヲ讀ンデ次ノ(1)カラ(3)マデノ問ニ答ヘナサイ。

京都東福寺のていしう(鼎洲)和尙が、或日、山門內で松の落葉を一つ一つ拾つてをられた。これを見た侍僧の一人が、『お手づから一つ一つお拾ひになるにも及びませぬ。どうせ後程掃かせますからと聲をかけた。和尙はつくつくと侍僧の顏を見て『今の言葉は修業する者の心持ではあるまい。どうせなどと後を當にするやうではいかぬ。一つ拾へば一つだけきれいになるのぢや。』と戒められた。掃除、言ひかへれば洒掃は實に此の心でなければならぬ。箒を持つた時にのみ掃除があるのではない。一塵の心にとまつた時その一塵を取去つて、洒掃となすところに眞の掃除がある。

(1)『どうせ後程掃かせますから。』トハドンナ心デイツタノデスカ。

(2) 七行目の『此の心』トハ何ヲサシテヰマスカ。

(3) 一塵ノ心ニトマルトハドンナコトヲイフノデスカ。

二、次ノ文中――線ノヒイテアル漢字ノ右ニ讀ミガナヲツケナサイ。

拜啓。來る十日午後一時より當邑普通學校に於て、福島道觀師の佛教に關する講演これあり候間面にてはかねがね面民の心田開發に御努力の事に候へば御爺樣の方も多かるべしと存ぜられ候。何卒多數御誘ひ合はせの上御來聽相成度、右御案內申上候。

三、『日章旗』トイフ題デ、自分ノ見タコト聞イタコト思ツタコト等ヲマトメテ一ツノ文ヲ綴リナサイ。(別ノ紙ニ書キナサイ)

四、左ノ文ヲ讀ンデソレソレノ問ニ答ヘナサイ。

(1) 野山に桃や櫻の咲亂れる頃、うすく空をおほうて、照りもせず曇りもはてぬ花曇の情趣をたゞよはす雲がある。

問 右ノ文ハ何ノコトヲ書イタノデスカ又ドンナ樣子ガ書イテアルノデスカ。

(2) 身には色目も見えぬ破れ衣をまとひ、日にやけ仕事にやつれて、年の頃もよくわからぬくらゐであるが、きつと結んだ口もとには意志の强さが現れてゐる。

問 コヽニハドンナ樣子ノドンナ人ガ書カレテアリマスカ。

五、次ノ文ノ意味ヲ書キナサイ。

(1) 負債の重荷に苦しむ彼の心は前にもまして重く鬱々として樂しまない。

(2) 緊乃は女手一つで一家の生計を支へ、幼兒の養育に心を碎いた。

六、次ノ文中――線ノヒイテアル片假名ヲ漢字デ括弧內ニ書入レナサイ。

我が國が初めてヒコウキ( )をユニウ( )したのは明治四十三年である。その後、エイイ( )ケンキウ( )のケツカ( )グンヨウ( )としては九二式九三式等のセカイ( )にホコ( )るべきシンエイキ( )をセイサク( )するに至り、ミンカン( )でも、スデ( )に內・セン・マン( )のそらをつなぐ( )テイキ( )コウクウロさへ開通してゐる。

中篇小說 女人命令【69】

李善熙 作 崔根培 畫

結婚(二一)

그모양 그대로 또 이틀이 지낫다. 이러케 이틀되던날밤 숙채는 오래간만에 남편을 안방으로 청햇다.

『웨그러우?』

김의사는 숙채가 얼마쯤 마음을 누그러지게 가지는것가태서 행결 다행햇다.

『우리 오늘밤엔 머 술맛난걸 해먹으까?』

남편는 화로에다 양은 남비에 장조림해 드려노흔걸 남비뚜껑을 훌떡 열어보면서 이러케 말햇다.

숙채는 그런말은 대수구도안코 한손으로 턱을 치밧치고 잇드니 이윽고 말 머리를 끄내다.

『여보 우리일을 어떠케하면좃소?』

『그녀편네』가 시굴서 올려와서 려관에 묵은지 오늘이 꼭 일에가 되는날에 또 이런얘기가 버러진것이다.

『글세 끗까지 해보는수박게더 잇소? 사실 저이들도 일이글는줄은 알면서 마즈막 밥악이니까 당신은 그저 눈딱감고 얼마동안만 잇구려. 당신만 모든것을 참고잇스면 일이페이는날이 잇슬게요』

『그야 나도 굿이나보고 떡이나먹엇스면 조흐련만 내가보기엔 일이 그러치 안쿠요. 더말할것업시 여보우리 이러케 합시다』

숙채는 무슨작난에스 말이나 하드시 말소리가 혀끄테서 가볍게 풀린다.

『우리 세사람이 똑가치 헤여집시다.』

『건또 무슨소리요?』

『무슨소리가 아니라 당신하고 나하고 또그녀편네하고 셋이서 다각각 남이돼서 당신은 당신대로 혼저살고 나는 나대로 혼저살고 그녀편네는또 그녀편네대로 혼저살고……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세사람중에 아무도 희생할수가 업는거애요. 그야 어느 한쪽이다른 한쪽을 억지로라도 잡아떼고 자기가 행복할수가잇스면 그러케해도 조켓지만 일이 어듸 그러케돼서요? 또본래 남을 희생시켜서 제가잘산다는것은 아모래도 흥칩이잇는 노릇이니깐! 그러니우리 셋은 똑가티 따로나서불행합시다. 그불행이란것은 우리가 각각 저술는 잘못ー죄우에 약간의『운명』죽팔자를 가미해서 만드러지는것이니까 그걸 괴한다는 재가미 어듸잇서요? 우리는 셋이서 똑갓치 불행합시다. 그것밖게 다올르리가 업서요.』

숙채는 애기 압으로옷에 섬망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면서 남편을 보고 생그시 웃는다.

『그러구 당신도 인제 이아프코 꼭 혼자 사서요. 다시게 집을 가까히하는날에는 영낙업시 벼락이 내려갈터니』

『거 사람이 웨 입을 그지경으로 놀리우? 당신이 이러케신경(神經)만 남아가지고 사람을놀으면 나는 꼭 미치것소 제발 당분간만 천치(天痴)가 좀돼주구려. 그래야 우리가 이길께아니요.』

『아니 이기기는 애당초 틀렷서요. 그러라고 내가 지고말것은 더구나 아니고ー우리는 함께 불행합시다』

인제는 숙채 입술이 약간떨리기를 시작한다. 화로에선 여전히 장조림이 달큰하고 짭짤한 냄새를 풍기며 졸고잇다.

『그런데 우리 이일에잇서 가장 기맥히는건 우리애기때문이요. 다각각나서 제아메 제목소로 오는비극을 주체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이「애비 잘못으로 에미애비의 비극까지 뎀으로 밧는다는건 참아 못할일이아니얘요? 그러나 그것도 조국에가서는 할수업는 일이지요』

김의사는 더 이따위소리를 듯고 안젓슬수가업섯다. 게집이란 언제던지 그입으로 망하는것이다.

『나 골치아퍼 죽겟수. 죄가무슨 기급할 죄란말요 이게당연한 일이지』

『아니 우리는 다각각 잘못을 저질럿서요. 당신과 나는 말할것도 업고 그녀편네까지가 하로가티 굴종(屈從)을 십년을 아서 제몸을 학대햇스니 그것은죄가 아닌가요?』

이러케 숙채가 자기남편을붓잡고 실컷 푸념을하고난뒤ー숙채는 마음이 가벼웟스나 그푸념을 바다드린 김의사는 울화가치밀엇다 이사람은 몹씨 화가나거나 몹씨 즐거울때는 술을먹는 습관이잇다

김의사는 그길로 나가 새로 한시가 되여도 들어오질 안햇다 숙채도 그때까지 자지안코 잇다가 애기 기저귀를 가려채이는데 그제야남편의 터덕 터덕하는 발자취 소리가 들렷다

그리드니 저ー쪽 맨끗헤방으로 드러간다 요즘 김의사는그 방에서 자는 까닭이다.

숙채는 전과달러 알븐체안코 잇섯스나 남편의 터드럭거리는 발자최소리가 그마즈막것인줄이야 어찌뜻햇스랴.

女性 四月號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重報

處女의隨胎罪 (判例에나타난女性動態) 金汝植

京城府內今春各女子專門中等學校卒業生알범特輯 ▲梨專▲梨保▲京保▲女高▲淑明 ▲進明▲梨高▲培花▲同德 ▲眞信▲女商▲槿花 ▲봄의跳躍

男女友情論 李泰俊

(女性時評) 宋今璇

再娶와家庭和平策

▲松都女人氣質의片貌……銀삿갓

▲環境과感化(條件反射)……鄭槿陽

▲朝鮮八道結婚儀式巡禮(江原道篇)……金濯雲

今日發賣

社會生活三年의르포르쥬

△齒科醫生活三年의내經驗……世專·李良淑

△敎壇生活三年의내經驗……京保·金聖愛

白麟濟博士家庭風景……記者

詩 畫 報: 내가생각하는것은 (文)白石 (畫)……鄭玄雄 / 맘 (文)李秉岐 (畫)……金奎澤 / 海棠花도피기전에 (文)金東煥 (畫)……崔根培

隨筆 버들피리……安懷南

詩 連翹花……李源朝 / 本乃伊……海蘂

▶聲樂鑑賞講座(完)……金管

▶簡單한西洋料理製法……劉福德

▶애기옷일습만드는法……任貞爀

▶白竹圖(烈女美談)……申鼎言

나의困境時代의안해를말함

◇아모리移舍를자조단녀도……李箕永

◇金비녀金반지가流質되여도……李克魯

◇保姆로訓導로內助의功은크다……李榮俊

女人解剖圖

☆畫家가본女人……金瑢俊

☆醫師가본女人……許信

增稅와大衆生活(時事解說)……李建赫

나치스治下의獨逸女性……金興濟

武裝한街頭孃의表情 까이드걸 라켓걸 때스걸

四月創作

中篇小說 거리의牧歌 (鄭玄雄畫) 李孝石

短篇小說 꿈 (崔根培畫) 朴魯甲

短篇小說 茶한盞 (鄭玄雄畫) 캐드린·맨스필드作 李秦鎬譯

中篇小說 世紀의花紋 (鄭玄雄畫) 金南天

表紙 金奎澤 挿畫 鄭玄雄 崔根培

▲珍聞奇聞 ▲當世常識 ▲女性界消息 ▲海外消息 ▲主婦備忘帖 ▲웃지맙시다

子女敎育에成功한兩親을찾어서

子女七男妹를大學卒業시킨平壤朱龍三氏宅 A記者

아들四兄弟를大學卒業시킨京城李禹珪氏宅 B記者

자녀를만히나서 잘길럿다는것만해도 복밧은일이아닐수업거든하믈며아들딸을 모두다 전문대학(專門大學)까지 마처주엇다는것은 확실히 장한일이아닐수업다。 더욱히그자녀들이 도 모다 사회에유위한 인물들로 만은일들을하고잇음에랴。하나이처럼화려한곳에 열매까지를열니게한데는 또한 그아버지와 어머님되시는분의 남모르게감추고잇는수고가 결코 적지안은것이다 그리하야여기 자녀교육에 성공한 가정들을찾어량친의 고심담을드러자녀를가진일반가정에널리참고의로를제공하는바입니다。

文化的遺産

羅禪征伐과 砲手 ⑮

湖岩

羅禪은 露西亞이니 혹은 阿羅斯라고도 일커럿는바 當時淸에서는 一五八三年(宣祖十六年)에 예르마크가 西比利亞를 東征한以來 고사크의 勢力이 漸次東으로 發展하야 우리 孝宗年間에는 黑龍江畔에 나타나게 되엇다。

때는 바로 順治入關의初이라 淸이 出兵하야 黑龍江畔에서 露人과 衝突이 잇섯는데 淸의 要請에 依하야 朝鮮은 前後二次나 遠征軍을 보내어 淸과 協力해서 露兵을 擊破하엿다。

第一次는 孝宗五年甲午(一六五四)에 北虞候邊岌이 鳥銃手一百과 哨官五十餘名을 더리고 遠征한것이며 第二次는 孝宗九年戊戌(一六五八)에 北虞候申瀏가 鳥銃手二百과 哨官六十餘名을 더리고 遠征한것이니 羅禪征伐이라 함은 이를 말함이다。

淸과 朝鮮이 合作하야 羅禪을 征伐한結果는 두번다 勝利를 어더 朝鮮軍은 凱旋하엿거니와 朝鮮으로서는 孝宗께서 遼瀋의 恥辱을 雪하시려고 養成하던 그 兵을 도리어 淸을 援助하게된것은 一種奇異한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것은 朝鮮과 露兵의 衝突이 모다 和解로 끗난것이 아니라 朝鮮人이 北方에서 처음으로 露人과 接觸한 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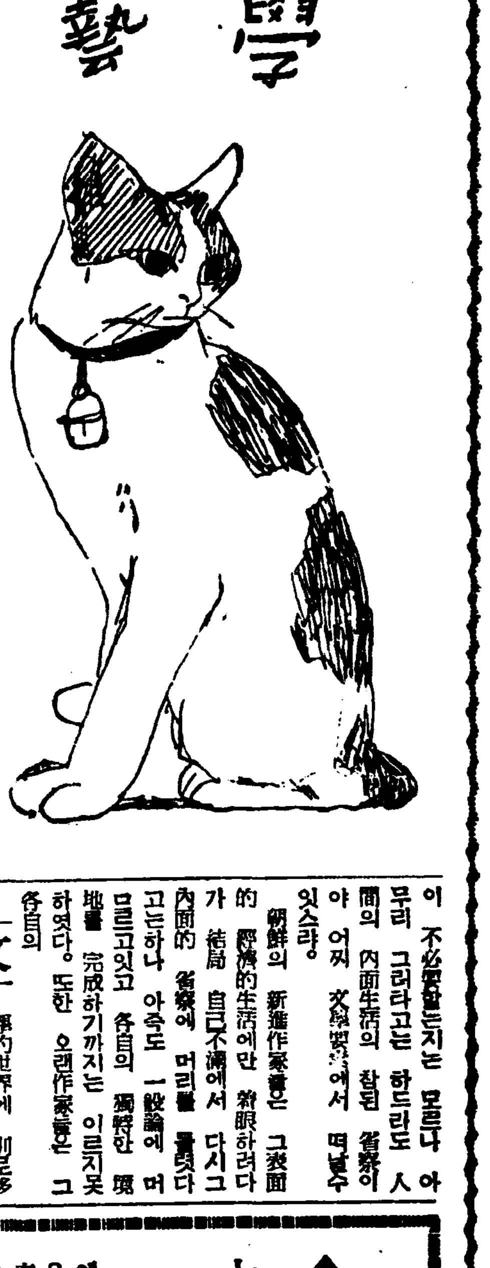
이뿐이 아니라 孝宗때에는 淸西文物에 對해서도 새로운 關心을 가젓스니 第一次羅禪征伐의 前年에 하멜의 漂着도 잇섯거니와 淸西文物의 一端으로서의 鳥銃을 採用한것이다 時憲曆을 採用한것이 이미 以上에도 말한바이어니와 羅禪征伐의 朝鮮砲手 即鳥銃手로 말하면 孝宗때와서 더 急務로 되엇다。

朝鮮人의 鳥銃은 壬辰亂中에 日本에서 傳來한것이니 朝鮮에서는 壬辰役때에 그것을 學得하야 丙子役에는 相當히 効用을 냇고 淸의 鳥銃手는 朝鮮砲手에 미치지 못하엿다。

이鳥銃도 그由來를 따지면 西洋에서 日本으로 전한 西洋新式武器이니 鳥銃이란 곳 西洋新式武器를 말함이다。

鳥銃도 西洋新式武器로서 朝鮮砲手가 羅禪征伐에 나아가 北方의 荒野에서 露兵과 싸운것은 자못 興味잇는 史實이라 할것이다。

學藝



三月創作評 (一)

藝術的情熱의 枯渴과 文壇發展의 膠着相

朴英熙

一般的으로 文壇을 展望하여 보면 때로는 盛運이 잇슬듯이 생각되는때도잇스며 그래도 發展이잇는듯이 보이는때도 업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거름더 들어가서

一靜一 愚하여서보면 어딘지모르게 無氣力하며 衰殘하며 方向조차 업서서 이러타 할만한 뚜렷한 傾向을 잡어낼수업시 흐미해저 드러가는것이다。

그것은 新春을 마저가는 疲勞가 아니며 夕照를 맛는 疲勞가 드니、따러서 알수업는 恐怖조차 이러나게한다。朝鮮文學의 現在의 進路는 하로라도 호미해지는듯이 생각되는때가 만타。個人的으로 한두사람 單純한 自己辯護에서 나오는『進路』의 解釋이 업지도 안흐나、이것은 結局 實質업는 虛勢에 不過하다。그러므로 文壇的으로어떠한 潮流를 形成하게는 될수 업는것이다。내自身부터도 이러한 疲勞에서 버서나려고 애를쓰나 잘되지 안흐며 各自몸을 괴여 보드래도 亦是 그러한狀態를 엿볼수잇는것이다。朝鮮文學은 꼿도 괴여보지못하고 結實을 기다리는듯한 感을주는때도 또한 업지아니하니 그 憧憬하엿든 結實이 結局 空虛하게 나타나는 現實을볼때에 依例이 생기는 氣質이려니와 即 이러한 時代的 或은 運命的무거운 疲勞가 다달이 加重하여서 나타나는듯하다。

勿論量的으로도 그러하려니와 그質에 잇서서도한 그러하다。

一量一 的으로 그數가 적어가는것은 그發表機關이 적어가는데도 原因한것이며 또한作品쓰는것을 副業으로 하게되는事情도 잇스려니와 그中에 表面으로만 엇는생각하드라도 發表機關이 적어가는데도 큰 關係가잇서서보인다。現在朝鮮에는 文士가 八十或은 九十人을 算한다고는 하는데 每月 그일홈을 紙面에서보기는 十人을 너머가는때가업다 不過 五人이나 六人이普通이다 或은 그보다도 나리는때가 업지도안흐나 雜誌編輯者의 保守的方法에 依한것이라고 非難하는소리도 들리고 해야『朝光』그리고는 季刊으로 나오는『三千里文學』이 現在로는 作品을 만히 실리는 機關이다。그러므로 어느때든지 六、七人의 文壇書齋는 어느때나 停滯狀態에 잇스니 이러한 現狀은 不振이니 疲勞니、하는程度가 아니라 우에서말한 바와가티 衰殘하여가는것이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면 그 每月 發表되는 二三篇、或은 四五篇의 作品을 通해서보는 그質은——그內容으로부터 엇을 우리에게 指示하여주는가? 이곳에도 그足跡은 호미하다。얼른말하면

一藝一 術的情熱이 업서서 가는것이다。藝術的情熱——그情熱은 作家의 眞理에 對한 單一性을 自己獨特한 傾向에서 옥만흘고 그傾向에서 어떠한 뚜렷한 自己境地를 構築하게되는것이다。藝術이란것이 單純이興味만을 標榜하고 創作할수는업다 그所謂『興味』라는 大衆性속에는 藝術家의 獨自的情熱이 엇게되는것이다。

現在朝鮮文壇에 나타나는 一般的 潮流는 情熱이 아니고 叡智가 아니고 興味인듯이 보인다。

말하자면 옛날처럼 文學을 愛惜하는 時代와는 달러서 深奧한 人生觀이나 社會觀의 深邃이 不必要할는지는 모르나 아무리 그러타고는 하드라도 人間의 內面生活의 참된 省察이야 어찌 文學영역에서 떠날수잇스랴。

朝鮮의 新進作家들은 그表面的 經濟的生活에만 着眼하려다가 結局 自己不滿에서 다시그 內面的 省察에 머리를 돌렷다고는하나 아즉도 一般論에 머므르고잇고 各自의 獨特한 境地를 完成하기까지는 이르지못하엿다。또한 오랜作家들은 그各自의

一文一 學的世界에 別로移變은 업다고 할지라도 加速度的發展은업다。이點에서는 新進이나 既成人이나 結局 同一한 膠着狀態에 잇는듯이 내눈에는 보인다。또한 그 一部는 우에서 말한 疲勞라는 一現象을 나타내게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어떠한 現象이 아니니 우리는 이러한 現象이、現在우리가 所有하고잇는 階段으로서 理解하면서 批判의 길을 열을수밧게 업는것이다。

나는 三月創作評의 稿를 草하여 달라는 依賴를 밧고는 今月號 雜誌에서 作品을 이것저것 차저보앗다 모다 몃篇안되는데서 短篇이 不過 三、四篇에 지내지안엇다。모다 中篇或은長篇이라고 肩書하여서잇다。創作評이 文章에서 밧는 印象만을 記錄하는 그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 未完成된作品에評을 쓸수는 업는것이이다。그리하여서 그만두기로하엿다。

그러데 나는 늘생각하는바이지만 作品評이라는것은 어느때나 內容의 一定한標準을定하고

一建一 即 作家의 稱讚을 먼저理解하고 그稱讚에서 構成된作品이 어떠케 잘되엿는지못되엿는지를 말하고서 하는바이다。그러데 그作家의稱讚을 理解한다는것은 作品가운데서 차저보아서 集成한것이며 그作家自身을 理解하는것은 勿論아니다。

그러나 이것의 濫用으로써 흔이는 評하는사람과 評을밧는 사람새이에 當치도안흔 辯護가 이러나는때가 잇슴을 보게된다 이글에 잇서서는 내自身부터 그러한 弊風에 휩쓸리지 안키를 努力하고십다。

小文庫

木花의 由來 거화, 서케의 語源

袋山生

李時珍이 말하기를 木綿에는 두種類가 잇서서木生은 古貝요 草生은 古終이니 古貝를 貝吉이라고 하는것은 訛誤라고 하얏다。何如튼 草生이나 木生이나 本來漢土의 原産物이 아니고印度方面에서 輸入한것으로서或은 南宋末에 들어왓다고하고 或은 元初에 들어왓다고하는데이즉 大略宋末元初의그 어름으로 잡는것이 無難하리라고 생각된다。그러면그것이 朝鮮으로는 언제건너왓는가하면 元末이요 처음그것을가저온 사람은 누군가하면 江城君 文益漸이다。그가 漢土에 갓다가 草生種의씨를 어더가지고 와서 立夏 穀雨 夏至에 各한個씩심엇더니 穀雨때에 한個가 겨우 나서 全朝鮮에 퍼지게된 것이다。漢土에서 木生이나 草生이나 普通木棉이라고 하기때문으로 우리까지 木綿을 무명이라고 하는것이 時에 木字 한자만·빼어서 保兵木이니 大同木이니 일컷고 잇는 것이다。그런데 江城集에는 文益漸의 長子 文萊가 문래를 ?字 文萊의 비로소 成功을 시키엇다고 햇는데 ?漸傳에는 江城의 男 斯天、益이 씨앗과 문래를 한께 創始하얏다고 한다。어느 便이 더 正確한 記錄인지는 모르되 문래란 말이 文萊의 이름에서나온 것은 事實가다。그건 그러라고 하고서 木綿이 업슬 때는 우리들이 무엇을 입엇든고 한즉 葛布나 毛皮類였다。毛皮는 갑지 비싸서 아모나 입을 것이 못되는 것으로 大槪는 葛布類였을 것이라 그 過冬이 얼마나 어려웟슬까를 想像키 어렵지 안타。木綿을 무명이라고 하는것은 漢土의北音을 배워온것이거니와 솜을 기화라고하는것은 去核한 말이요 또 솜과 한다。去核은 東고하는것은 吉貝가 변하야 된것이라 한다。勿論 字義그대로로서 別다른뜻이 업지만은 東火는 刪信했『東國之火於以再家』란 古典에서 나온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쉽장 짜노흔 것을 무명이라고하지 綿花그대로는 木花라고 하지안는가 아마木綿의 木과 綿花의 花字를 合치어 그런 말을 濫用케된것이리라

新刊紹介

▲農民生活 三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崇實專門學校內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文教の朝鮮 三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教育會 振替京城一〇三〇〇番 定價三十錢

▲朝鮮世界 第二十三卷第一號 發行所 京城府樂園町三一 朝鮮世界編輯部 振替京城四六四〇番 定價二十五錢

▲訂正 三月十五日附夕刊三面學藝欄新刊紹介欄에 三千里文學第二輯이 發行되엇다고 한것은 三千里文學第二輯이 아니고 三千里四月號의 誤記이기로 訂正함

科學新題

알루미늄

一記者

輕金屬時代 알미늄 또는 마네시움이나 이러한 合金과가튼 가볍고튼튼한 金屬이 吾人의 生活에 必要한 時代가 急速히 닥처와다 여러가지 飛行機의 設備에 따라 軍事上으로는·航空機도 必要하게 되고 平時에잇서서도 不可缺의 材料이다 日常使用하는 輕金屬으로부터 鐵道用水槽及 自動車部品에 이르기까지 그 用途는 크게 擴張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알미늄 精錬만에 對해서 말하기로하자。

보-키사이트와明礬石 알미늄鑛石은 보-키사이트라고하는 鑛物인데 大槪 熱帶地方에서만 産出되고 日本은 溫帶에는 賦存하지아니하므로 外國으로부터 金屬알미늄을 輸入하고잇스나 알미늄의 使用量이 年年增加하고 一方 自給自足의 必要로부터 國內에서 이것을 精錬하려고 外國으로부터 보-키사이트를 購入해서 滿俗의 電力이잇는地方에서 精錬하고或은 代用品 明礬石으로부터精錬하기도한다。

그러나 이것을가지고서 多量으로서 安心할程度로 大量埋藏은 되여잇지안타。그러나 보-키사이트는아니나 이와類似한 鑛石으로 礬土의 含有量이만흔것이 朝鮮、滿洲、北支에 거의 無盡藏으로 埋藏되여잇다。

礬土頁岩 古生代 二疊石炭紀의 時代의 地層은 滿洲及 北支에는

조地層을 이루어서 여러곳에 蔬菜 採掘되며 또 그것이 無煙炭과 石炭을 含有하고있다。이 石炭과 併行해서 耐火粘土의 層이 存在하고 一層으로부터 때로는 四層이나 五層까지 採掘되여서 이 耐火粘土는 窯業上 必要不可缺한 材料로서 每年 數千萬噸이라고 하는것이 滿洲及 北支에서 輸入되는데 이 粘土中에는 礬土의 含有量이 大端히 多數 礬類여서 四〇%、五〇%가 普通이고 때로는 六〇%、七〇%에 達하는때도잇다。

이 時期한粘土에對해서 礬土頁岩이란 이름을 부치게되엿다。比重은 二·八—三·〇 普通 불투명 조금 무겁고 硬度三—五로서 이것을 顯微鏡에서 보면 카오리나이트、하로이사이트、다이아스포-아等의 鑛物이잇고 分析의 結果는 礬土分外에 石綿物로서 珪酸三—一三%、鐵分三—一三%等이 主要한 化學成分이다。

太古 植物이 繁茂한當時 地盤中의 加里는 植物生長의 榮養으로서 吸收되고 加里의적은 土壤 即 耐火粘土가 生成되엿다。다음으로 이粘土層은 地盤의 上昇에依해서 一部分 地表面에 나오고 空氣中에 曝露되여서 酸化作用을 바덧스리라는것은 想像하기어렵지안타。現今 熱帶地方에서 礬土의 豐富한 土壤이 生成되며서 잇는바와가티 옛날에도 그와가튼 作用이 行해저서 礬土頁岩이 생겻스리라고 推論되나 아직도 明確한 原因은 알려지지안흣다。

出版記念會 有感

鐵木塔

사람이 깃븐일이잇슬때그 것을 祝賀하고 슬픈일이잇슬때 그것을 慰安하는것은 人情의 가장 端初的인 發露인것이다。그럼으로 이러한 行事가 우리네의 日常生活에 늘 잇는바이지마는 어떠한 作家나 詩人이 多年間 精進한 結果로 한권의 冊子가 나올때 同好者나 友人들끼리 모혀서 그 努力을 慰勞하고 또한 그成果를 祝賀하는것은 이러한 人情의 떳떳한 發露이라 무어 허물할것이업을뿐만아니라 當然한일이라고할수잇스나 요사이 出版記念會라는것을보면 이러한 떳떳한일이 넘우도 儀式的인 定規를 밟는데對해 若干의疑問이업는바도아니다—라고하는 것은 남을祝賀하고 慰安하는 것은 一定한軌道에서 그會合의 참다운 意義가잇슬런인데 辭說以外에 人情의 發露인 만큼 그儀式이라는것도 人情이 서로通하는範圍의 行事이야 그것이 단순한 外交的인 儀式에 그치지안코 참으로 人情이잇는儀式이될 것이다。하지만 요사이의 出版記念會란 그作家나 그作品에 잇서서 참으로 인정다운 理解가 그리 만치 안타。即 그作家의 努力에 對한 慰安을 중심으로한 것이아니고 出版記念會에 모히면 데면데면 사람들 發起人으로해서 어듸서 모혀서 저녁을먹고 그저 文壇에 일흠이잇스면 그作家의 努力도 慰安해야할것이고 또는 그作品에 對한 感想도 서로 이야기해야만 그會合의 참다운 意義가잇슬런인데 辭說以外에 祝賀나 感想談이 誠意를 못하게 하는 境過가 잇슬 기를 못하게되는 ... 責任者가 當局의 充分한 諒解를 어더가지고 會合을가지지아니하면 지든지 그러치아니하면 지금지나 아노코 더구나 出版記念會가 會費制이 보다 더 不便한것 모두가 主催者 한 이야기를 誠心으로 할 수 있는 方法이라 할 것인가。

行脚短信

無等山遊記 (2) 靈場의『天帝ㅅ등』

李殷相

第二日(1)

證心寺—藥師菴—天祭ㅅ등—(新)立石—長佛峙—地藏菴—瑞石—圭峰—證心寺。今日行程山行五十里。◇

證心寺에서 아침供養을 마친 뒤에 住持 和尙의 指路로 亘日峰下의 藥師菴을 차젓습니다。寺의 左側로 한참이나 올라가니 光州川上流의 昭麗한 川谷이 나섭니다。내를건너 다시 숲속으로 드는듯만듯 한언덕을 넘어나자 近者에 이룩한 藥師庵이 눈우에 나타납니다。

간밤의 추위가 얼마나 하엿는지 눈얼음 못녹는 곳은 내마르도 가라랑。바위마다 얼음얼어 숲속에 눈차히고 고서 ... 山으로 오르니 마음에 뜻이오다 겨잇습니다。

藥師菴은 서길에보고 물아나 가시건너 右路로오 못하고 冬眠속에 구든듯시 잠겨잇습니다。

藥師菴은 서길에보고 뗏하고 민망하엿습니다。

이 됩니다。이 藥師菴은 新羅代부터의 古基였단것이니 여기서 藥師如來가 發見되어 仍舊하야 이 菴子를 세웟습을 보아 化하야 생각할수가업스매 얼고 알겟습니다。그러나 眼識업는 이몸의 所見으로는 그 가람의 藥師如來의 遺物이라고는 밋지아니합니다。

無等山이 靈山은아니라고하나 마수 서리로 된길을 만남은 알 길이 수험치아니한줄 알겟습니다。

처음으로 이른는곳을 下氣、조금더가서 中嶺、조금더올라 上嶺라고부르는 이三嶺은 다시總稱하야『天帝ㅅ등』이라고합니다。四圍가 다松林인데 이三嶺의 遺壞만은 平濶한 一領地가 되엿는데 지금은 차차 보히지안흐나 數千年前까지라도 여기서 新羅의祭典을 베풀엇고 求福의 信徒들이 언덕어덧던것입니다。

天帝信仰그곳건이야 오늘와서 幼稚한時代의 愚昧한觀念이라고 밧게 볼것이 업설지라도 그것이 朝鮮人의 歷史的脈絡이 끈치지아니한것 이라보면 다시금 感激한一事가 아닐수업습니다。

그리하매 이『天帝ㅅ등』이란 곳이 無等山을 通하야 어떠케나 宗敎的乃至文化的價値를가지는 일이 잇을것 ...

無等山에 無等山神祠가 잇섯다 하엿는데 그遺址 지금 이山中의 어느地點인것을 的確히말하기는 어려우나 그當時를 表示하엿스되 孫東十里라한것을보아 나는 이天帝ㅅ등이 곳그無等山神祠의 遺址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는如何間 新羅時에 小祀를 지나고 高麗에나와서는 國祭를 지나고 李朝에와서도 本邑으로 하여금 致祭케한 無等山神祠가 잇섯든것은 事實이요 또 지금 이天帝ㅅ등이 이루파 祭場이나 어엇든만큼 祖先傳來로 이곳을 靈場으로 專稱하야 守護할것을 所願을 하소하엿든 자리엿든것도 事實입니다。

언의여 비나이다
두손모아 비나이다
天帝ㅅ등 눈길우에
마음모아 비나이다
내뜻이 님의뜻이옵거든
일워줍소사 비나이다。

麗末史話 (4)

麗·李交替의 歷史的意義

崔益翰

封建時代에잇서서 元來 史的惡運은 平常時보다도 王朝變易의前後가 第一甚한것은 그 理由를 說明할必要조차 업는것이다 泰封王이弓裔를 가지고보더라도 만흔疑問이업지아니라는 新羅遺裔로서 流離顚沛의가운데에서 자라서

僧

門 에托跡하고 盜賊의 窟中에 倔起하야 不出二十年에 벌써 天下의三分之二를 차지하얏스며 用兵의術과 賢能을 使用하는 才略은 實로 三韓有數의 豪傑이엇다 이러한豪傑로서 종작없이 狂暴放悖로 일

사머서 畢竟 敗國亡身의 悲境에 이르렀다것은 그가 病風喪性이아니면에는 到底히 그것을 首肯할수업는것이다 十數年前 筆者는 弓裔都邑北京을 차자가서 一千年山河를 바라보며 一世之雄을 조상하얏다 讓古詩의 結聯으로서 當年弓裔猖狂甚、非是王朝捏造文이라고한記憶이 아즉나며 더구나 巧妙하기짝이업는 王昌瑾의 鏡文과 手握寶劍以披之하는 王建夫人柳氏의 强勸即位는 모두 洪儒、裴玄慶等諸將의 周到한謀策의 結果에 不過한것인즉 當時史氏는 이러한 機密를 어데까지 터지안흣기고

神 한 天祐神助로서만 表示하는데서 麗祖의 立國과 弓裔失位의 合理化가 더욱나타나는것이다 이러한 弓裔의 『王公將之、吾事已決』이라고하얏스니 平日 王建에對한信任과 許與가 얼마나두텁던것을 알수잇거니와 群心怨讒、天意有屬이라는 麗祖即位의 宣言이잇나자마자 馬軍將桓宣吉、伊昕岩等의 叛謀가 잇대어 發覺되엇슨 그 또한 麗祖의 合理化를 擧勢的으로 否定하는것이아닌가

그러나 新羅의末代에는 그 君主의 無誇行爲이 자심하엿다아니라 高麗初代에 高麗末年의 崩壞의 一部高麗가는 忠臣義士가 업섯고 一千年傳統의 羅朝에對한 臣民의 叛旗는 到處에 나부럇고 同時에 後百濟、後高句麗의 勢力은 마치 支那六國의 後裔의 遊說같이 奉命不服하야 다투어 이러나는現象을 되푸리하얏스니

麗祖 로서 羅朝에對한 叛逆의 罪를 뒤집어쓸 責任은 이조금도업섯다 鮑石亭 잔치의 醉興이 깨이지기前에 林嫁都가 一夕에 陷落되어 羅王은 歿殺되고 宮嬪들은 蹂躪되고 民物은 擄掠되얏스니 이에 羅朝를 나고 强盛을 이룬것은 오로지 甄萱의 罪로서 實로 麗祖의 勸慰政策 名正言順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反面에는 麗祖는 羅王의 讓位를 바닷스니 新羅의 叛臣으로 自負할수는 업섯다

道 **德** 的 裏面에 反逆하야 一個武人으로서 北方武人의 功을 一時에 도모하자면 그

別 **段** 의異議가 업섯든것이다 그러므로 麗祖의立國에 對한 麗僞의 疑惑을 疑惑할 理由가 업는것이다

擧 **皆** 上에서 列擧한 諸臣代表者들 中에 武人 鄭夢周 ...

當 **時** 의 ... 王氏의 系統과 忠節의 問題에 있어서 ...

二重殺菌을 해야만 림질은 根治됩니다

림질을속히根治하실여러분!

오즘누기에 고통이심한분

再發되야 한탄하시는분

內服藥을 장복해도 낫지안는분

부부화합에 자미를모르는분

부인병으로 고롱밧는분

百發百中으로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의사전문의 림질근치약『부랑오(?)』는 직접 병원균에 작용하며 약기운은 몸전신에 퍼저서 모든종세를 다스려주나니 더구나本劑는 사라잇는 몸조직과 병세의변화를 고려하야 二重殺菌을 하는약인만큼 재래의치료제의 單一性能에 비하야 더욱 특효를가지랴이오니 한번바삐 병원에서버서나실여러분 은 이약을 ...

東京市 ...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振替東京三五〇一九)

—약가…보통약…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입니다—(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약을먹어서는 림질은根治되지안습니다

새로운 복음! 重大한時局의새해에 여러분께서는 이시세에마당한 튼튼한 일꾼이 되서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亡國의 병의하나인 림질을 하로바삐 적절한 치료약으로 근치시켜버리시고 健康에 넘치는 새로운 희망과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게신 바이오나 림질만은 內服藥—탕약, 물약, 가루약, 환약, 올녀먹는약, 膠球등으로는 절대로 림질이 根治되지 안습니다。

두렷한全快實例

急性에걸려 驚愕하엿스나…

(平壤) 林小香

年少者로 버는돈은 적고겨우겨우 그날그날을 보내는 저에게 淋疾에걸렷다는것은 二重으로 슬픔이든것입니다 ...

自宅治療로全快

(木浦) 元慶達

(前略)나는今年三十歲의靑年이올시다 ...

蓄音器界空前의巨砲 シスター商會大サービス

蓄音器一ラヂ、無代進呈

이優秀한蓄音器를 — 어째 無代進呈 하는가

▲꼭 한번 읽어보십시요

シスター 携帶用

好時機는또 업다 곳申込하십시요

※申込規定

品質優秀 堅牢保證

實物縮寫

最新式裝置完備 無代進呈의蓄音器 定價貳拾八圓也

申込先 シスター商會宣傳部

申込様式

代理店募集 合資會社 シスター商會

봄의府民館講堂 全部豫約되엿다

三四五月에 빈틈업는 스켓쥴 大部分은 劇과音樂興行

京城의 唯一한 集會場所로서 여러가지 會合에 使用될뿐아니라 劇과映畵와音樂等의 興行에 업지못할 府民館大講堂은 해마다 收用人員이 느러가며 利用範圍가 커지고잇다。今年봄의 三月四月五月의 스케쥴을 살펴보면 三月中에는 七八九三日間이 그냥비여잇섯는데 이것은 防空演習으로 말미아마 利用되지안햇스며 남어지는모다 實後使用으로되여잇고 四月에는 十九日하로뿐인 그밧의 撤과掃除等하게하야 빼우고는 나머지가 모다 實後로使用하도록 豫約이 되여잇스며 五月은 規定上 豫約할수는업스나 벌서부터 使用하겟다는 申込이 殺到하야 番號順으로 決定을 할터인데 이것도엽어 滿員以上으로 超過되여잇다。

이처럼하로도 비일새어 자업는府民館大講堂은 대체어떠한데 만히使用되는가하면 大部分이 劇場을가지지못한劇團과 映畵音樂等의 興行으로서 터욱보잘것은 이러한興行의 셔-즌이라 豫約에對한 프레미암이부를지경으로서 엽을움하다자는 講堂을에 畵讀理가 업슨形便이다 府民館講堂을 通한 이봄의演藝興行을 살펴보면 西洋서건너오는 舞踊團、妓生演奏會、音樂會、劇團公演 映畵會等等 例年에보지못하던 盛況이다。

不振의伊太利映畵 政府에서 積極獎勵

伊太利에서는 昨年一年間에 三十八本의 映畵가 製作되엿는데 滿足할만한 成績을 낸것은 十本이못되엿다 그래서 三年前부터 映畵國策을 세우고國産映畵의 獎勵를 시켯스나모두 拙作만 나오게 되엿다。令息을 柊林에 보내서映畵製作에對한 硏究를 시키고 잇는 뭇솔리니 首相이라 이것을그냥보고 잇지를안코 속後積極的으로 映畵政策을세우기로되엿는데 文化大臣이 主筆로잇는 파시스트御用映畵雜誌비안코·에·네로는 다음과가튼 爆彈社說을 실어서 映畵業者들의反省을促한바잇섯다。

『伊太利의 映畵製作者나 監督들은 그들의 責任을 痛感할때가왓스믈 알지안흐면 안된다 政府가 國家的映畵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 그들에게 여러가지의 豊富한方法과 便宜를 주엇건만 그들은 그것을 遂行할能力이업고 好意를 살만한 價値가 업스믈暴露하얏다。政府는 다시 어解決方法을 講求할것이다』

이것은 速히말하면 旣成製作者또는監督들을 排擊한다는뜻인데今後 伊太利映畵는 어떠케될지注目되는바이다。

世界第一의 작난구러기

排優가운데 작난조하기로는 진쟈·로쟈스가 世界第一이다。그대신 撮影박가테 나가면 俳優의틀내저안키로도 그는 世界第一이다。그뿐아니라 映畵에나타난女子가운데 말괄냥이로도 世界第一이다 이만큼 여러方面으로 俳優로서의 資格을 가진俳優로서 모도가 世界第一이니 더말할것은업스나 그작난을 조하한다는 例로서이야기를 들기로한다。

撮影所안에서 아주작난꾼으로 有名해젓스나 이런사람이 獸形하고잇는 그女子의主演映畵『本人出現』의撮影中에 일어난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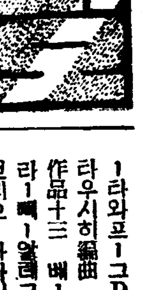
某俳優의렬이알사이더에게서 풀사투리의 처녀가자저와다 그처녀는 엇을보스고 監督의紹介狀을가지고 엇써왓든라가되게되엿다。

·配役이 벌서決定되엿스니 拒絶해야만될터인데 그처녀는 엄연한 靑年의 請을가지고 왓스므로 어떠케해야 조흘지 몰라서 監督을 알코잇섯는데 나중에알고보니 그처녀가바로 主演者로 자스엿스므로 撮影所안이 발칵 뒤집혓다。

그女子는 작난을 한가지의스포-츠로 알고잇다고할하엿스니 世界第一의 작난구러기다운곳이엿다。

파라마운트作品 報道戰 黃金座에上映

뉴-쓰를 正確히 迅速히報道할뿐아니라 모든 社會惡과싸우기爲하야는 목숨과 愛人을 내여던지는 新聞記者의 生活을그린 映畵로서 主役은 파라마운트社의 中堅인 알렉산다、홀에며『렉사스決死隊』『스윙』에主演하던 프랜드、마-크마데어인데 原名은『特種記事』라고한다 十七日부터市內黃金座에서 上映하기로되엿다



放送

十五日(火曜)

◇午後六時童謠와이야기 一、童謠 1、齊唱 저오날 2同잠옹우에잡새 3、獨唱 라란드(朴英姬) 4、齊唱 달마아 5、同꽁지기 6、同봄 7、同저녁인사 二、이야기 1、바둑병아리(金玉實) 2、걱정이또끼(李基信) 三光幼稚園兒童 伴奏 鄭在郁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 『人種과眼色』 中央高普 李 根 嚴

◇同七時四〇分 (平)講演 『支那事變과今後의財政展望』 平壤商工會議所 朴 尙 僖

◇同八時 舞臺劇 —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토끼타령』中 金容承脚色 第二幕 山中場面 (강호생이座席다툼) 配役 鼈主簿 林芳蔚 토끼 金顔洙 범 丁南希 노루 申俠童 사슴 徐湖九 도야지 金光淳 너구리 趙永學 잔내비 吳太石

◇同九時 피아노獨奏 一、토카타와 프-그 D短調 빠하作曲 타우시히編曲 二、悲愴소나타 作品十三 베-토-벤作曲 그라-베-알레그로 몰토·에·콘 브리오 아다지오 칸타빌레 三、들어라종달새 (슈-베르트作曲 리스트編曲) S、M、엔더슨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偉人傳 ◇同六時二五分 (平)講演 ◇同六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自天津) ◇同八時 (城)新日本音樂 ◇同八時三〇分 (東)短唄 ◇同八時四〇分 (京)校明式 ◇同九時 (東)講談

十六日(水曜)

◇午後〇時五分 獨唱(레코-드)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 『보건衛生에對하야』 城大講師 崔 熙 極

◇同四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 (京城)—京城梨花女子高普—

◇同六時 하-모니카와童謠 一、하-모니카合奏 1、君ケ代行進曲 2、螢雪의功 3、故鄕의廢家 4、쓰레라마-치 二、童謠 1、齊唱 봄消息 2、獨唱 봉(李圭玉) 3、齊唱 시내물 4、獨唱 작은새 5、獨唱 어린이나라(金貞淑) 6、齊唱 배노래 京城리-도소사이에티- 指揮 金 大 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 『琉球의風俗이야기』 金 日 坤

◇同七時四〇分 講演 『科學과戰爭』 中央高普 [illegible]炳俊

◇同八時一〇分 歌謠 一、相思別曲 二、黃鶴洞 安錦仙 金花香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同八時三五分 라듸오小說 『提琴家의발오릴』—金白有作 朗讀 卜 惠 淑

◇同九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파 二、併唱 가、大丈夫 나、漢城歌 杖鼓 沈相健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琵琶 ◇同六時 (大)幼兒劇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드라마 ◇同八時三〇分 (城)鄕音樂 ◇同八時五五分 (東)講談

十七日(木曜)

◇午後〇時五分 (東) 吹奏樂 一、喜歌劇『[illegible]』序曲 [illegible]作曲 二、武士의歌 [illegible]作曲 三、喜歌劇『며리-위도-』圓舞曲 레하-르作曲 四、行進曲『東京』 陸軍戶山學校軍樂隊作曲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 辻 順治

◇同[illegible] 레코-드音樂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婦人과家事經濟』 東亞日報 朴 承 浩

◇同四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 (京城—川商業—(第一發表)

◇同六時 어린이科學 『스페이풀파이버-』 任 喆 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講父 吳 基 先

◇同七時四〇分 講演 『季節의心理』 金 晋 燮

◇同八時一〇分 一、關山戎馬 二、건아리 三、긴念佛 四、자진念佛 張鶴仙 金秋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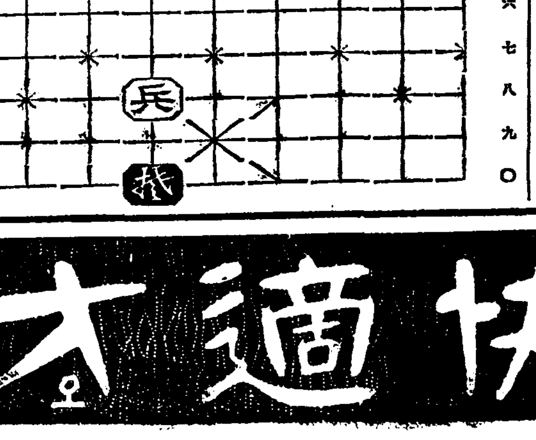
◇同八時三〇分(東) 一、千鳥의曲 宮原[illegible] 管獨奏 二、캐리오카 유-만스作曲 三、진서-의哀傷 한스만作曲 四、베로-나 듸로作曲 五、蒼空 도널드손作曲 六、愛國行進曲 內閣情報部撰定

◇同九時 古談 『夢見李白』 杉井 幸一 金 東 源

◇博譜大集 105 【問題】

◀楚가이기는수▶

楚가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 보십시오 (博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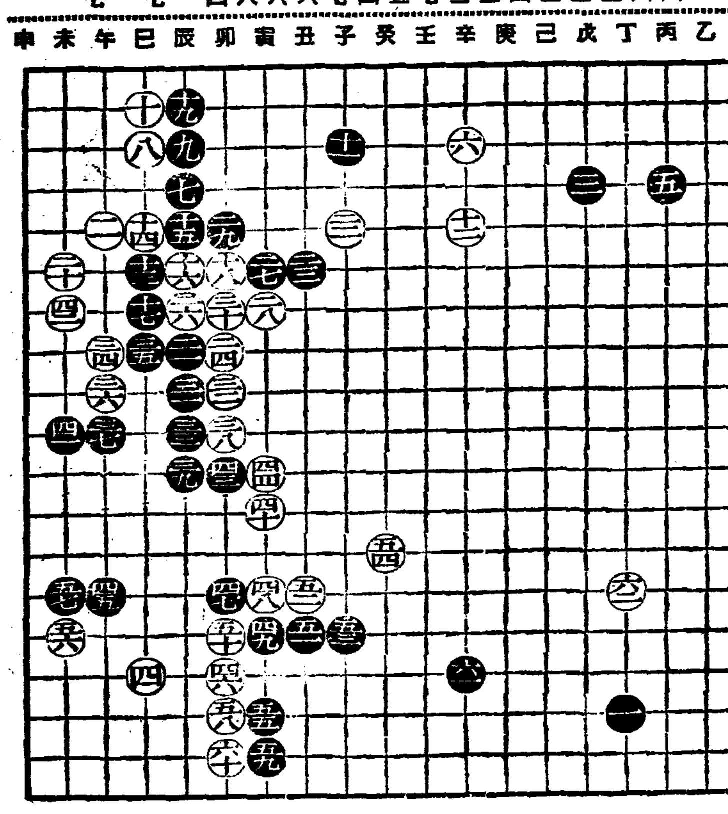
實利에어두은 中央突入의陣法

三玄子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6)

白 丁奎春 黑 金秉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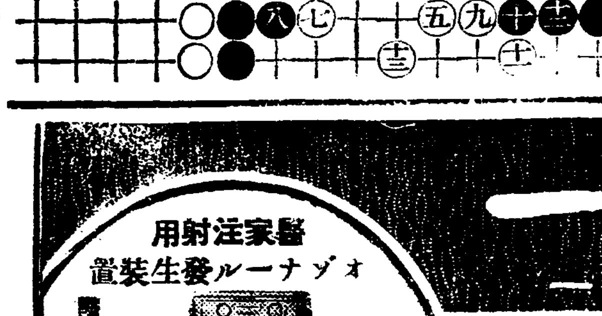
●四七 卯의十四 ○四八 寅의十四 ●四九 寅의十五 ○五〇 卯의十五 ●五一 丑의十五 ○五二 丑의十四 ●五三 子의十五 ○五四 癸의十三 ●五五 寅의十七 ○五六 未의十五 ●五七 未의十四 ○五八 卯의十七 ●五九 寅의十八 ○六〇 卯의十八 ●六一 辛의十六 ○六二 丁의十四 …死點… ●六五 卯의七 …粘… ○六六 卯의七



前二回에서 白의 初擧者와 다름업는 貪棋를두어 先手를 活用치못함으로 말미암아 包圍의威脅에暴露되엿든 左邊下隅의黑陣이 先手를奪還하야 左邊中央에 적지아니한 地盤을 構築할과함께 그下隅白陣을壓迫하게된 顚末을 말하얏거니와 그까닭에 어제 黑四七卯의一四는 一層白陣을 兩斷하야 이方面의白勢를 破壞하면서 中央으로까지 發展함을企圖하얏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지내친일이 아니라할수업다 첫재 白陣을兩斷하나 어느것이나 死活의威脅을 늣기지안코 또이白勢를滅殺함은 意味가업지아니하나 그것은 勢뿐이오 作戶의可能性은 稀薄한것이니 그럼으로 黑四七을 丑의一六 或은一七에두어 左邊下隅의白陣을 그右面으로 壓迫하면서 下邊中央에 黑地를 構築하는 實利主義를 取하는것이 올치 아니한가 더구나 그와가티하면 右邊下隅에 黑의基本定石어 丁의一七에잇스니 그와連結하야 어方面에 巨大한黑地를構築할 可能性이 充分히잇는것을 이저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白四八寅의一四로 말할지라도 子의一七에두어 左邊下隅의토치카陣을 發展시킴으로써作戶의實利를 取하는것이 正當한 應應이라고 생각한다 어째그러냐하면 左邊中央의黑陣은 어미完成한者이니그의中央에도 發展을 阻止한다고 그로써 黑이威脅을 늣기저안코 또白陣이兩斷되나 우에서말한바와가티 中央의白陣은 幾許의陣勢가 減殺되여지 다름問題가업는데 白도의一六 및 卯의一六의토치카陣을 子의一七로 發展시킴은 어局勢에엇서서 돌이업는 大場인까닭이다

黑四九寅의一五 白五〇卯의一五는兩方이 다가티豫期한應酬이오 黑五一丑의一五七 寅의一六으로 直走하야 左邊下隅의白陣을 壓迫하는 同時에 黑四七卯의一五의黑一點이辰의一四로 直走하야 白陣을兩斷한 本意를貫徹하는것도 조흔데 勿論 그利害는 斷言키어려운일이다 白五二 丑의一四、黑五三 子의一五、白五四 癸의一三、黑五五 寅의一七、白五六 未의一五、黑五七未의一四맛 白五八 卯의一七、黑五九 寅의一八、白六〇 甲의一六은 모두 通例의 應酬이어니와 黑六一이 辛의一六에두어 이方面에 巨大한 地盤을 構築하얏는데 白六二는 丁의一四에 두어 어巨大한 黑地의 破壞를 斷念한것은 理解할수업다 이에對한 論難은 次回에서말하겟다

……參考圖……



醫學博士 脇田政孝先生發明監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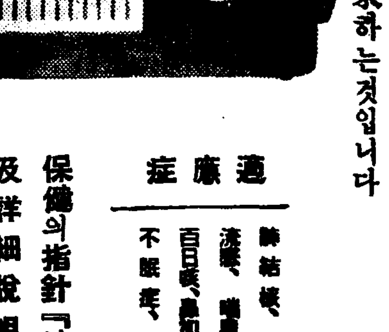
純粹オゾン發生機

快適オゾナイザー

一家의健康을守護한다!!

醫療保健에劃期的偉効 オゾン活用時代到來

オゾン이 流感、肺炎、結核等의 呼吸器病에 非常한 效果가잇슴은 諸大家가 發表하고잇는바입니다 快適オゾン의 殺菌力은 此等病原菌(結核、肺炎、지프테리、연쇄구균等)을 短時間內에 死滅시킬만치 強烈합니다 藥餌와가티 間接이아니고 呼吸과 共히 直接氣管支와 肺臟內部의 病患部에 達하면 卽時強力한殺菌作用을해서 炎症의 蔓延을 停止시키고 治癒를 速하게할과 同時에 活潑한血液의 新陳代謝를 이르켜서 食慾의 增進과 疲勞의 恢復을 促進하고서로어울러 偉効를 奏하는것입니다 轉地도 無用! 保養은 어데서나! 가만히잇스면서 養生할수잇는 好機會를 모든사람에게주고 게다가 轉地以上의 效果를 齎來하는것입니다



適應症
肺結核、急性肺炎
流感、喘息、氣管支炎
百日咳、鼻加答兒、神經痛
不眠症、神經衰弱

保健의指針『健康讀本』及詳細說明書進呈

健康者에 잇서서도 新鮮한 空氣—オゾン은 가장 必要합니다 에에 伴하야 血液은 恒常新鮮淨化하고 衰弱疲勞가 一掃되과함께 全身에 強한 自然治癒力과 鬪病力을 貯蓄할수가잇는 것입니다

清淨新鮮한 快適オゾン帶에 熟眠하면 病人은그 治癒를 速하게하고 健康者는 翌日潑溂한 元氣로 活躍할수잇습니다 實로 最良의 療法이며 賢明한 健康法입니다 一家에 一機의『快適オゾナイザー』가잇다나 生活을 快適케할것입니까 또事務室、工場、病院、料亭等 各方面에도 아무조록 常備하시옵 推奬하옵니다

『快適オゾナイザ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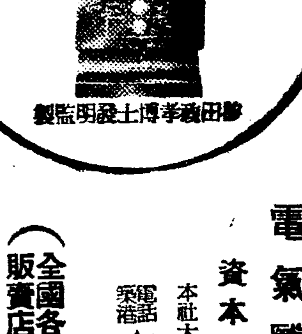
(1)電氣的危險은 一切 업습니다
(2)純粹オゾン이 發生하고
(3)發生能率이 極히 조코
(4)電壓에 까지만하면되므로 極히簡單합니다
(5)電氣料는 僅少하야 十日分 一錢以下로 足합니다
(6)希望時間만 使用할수잇는限時裝置라엽어-가부터엇습니다

『快適オゾナイザー』는 オゾン醫學의權威 脇田政孝博士와弊社의 製作技術家의 協力으로된 新製品으로서 絕對他品의 追從을 不許하는 優秀品입니다 優良無比한 材料를 選擇하고 嚴重한 檢査를 밧고옛습니다 弊社는 製品에對하야 絕對責任을집니다

帝國製鋲株式會社 電氣醫療器部
資本金 參百萬圓
本社大阪市港區八條通二丁目
電話築港(二五二九·二九一六)(三九三〇·九三七·九三九)

(全國各地에有力한販賣店을募集함)

醫家注射用 オゾナール發生裝置



脇田醫學博士發明監製

T-5

明快한眼科治療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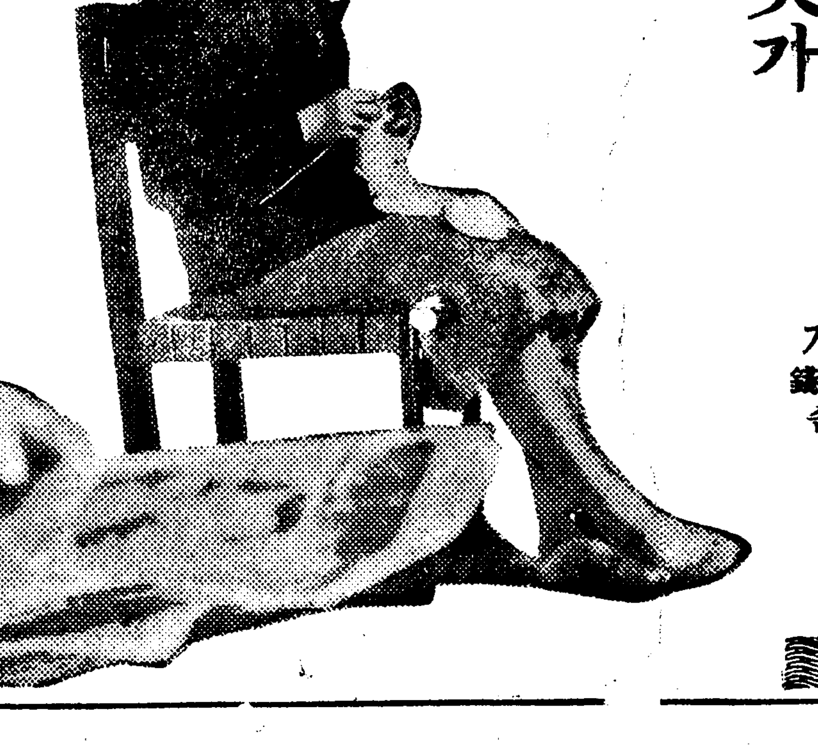
スマイル (스마일)

疲勞된眼에는適當한 休憩가必要하다!
病든 眼에는 愛撫를 이저서는안된다!
거기에生活의微笑가 잇다!

例를들면
眼이疲勞된때
充血되엿슬때

글을쓰고 책과 新聞을보고 編物을하고 하는우리들의 日常生活은 眼의酷使뿐들입니다 當然히 眼이 疲勞되고 充血되고 乃終에는 그틈을타서 眼疾의 侵蝕하는 바가되기쉽습니다 例를들면 눈속이 가렵고 말브며眼脂가나오고 光線이부셔고힌자위에 피ㅅ대가서고하는 것들은 각금각금 우리들의 經驗하는眼의 障碍입니다

그러할경우 스마일의 한방울 한방울은 快히 眼內에 숨어드러 不快한眼의疲勞와 充血을 消退시킬뿐만이아니고 眼疾을豫防하고 治療하야 眼內를 健全히해서 視力을 明快히 합니다 당신의 日常生活에 꼭 賞用하야주십셔요



모양잇는携帶用容器入
定價二十五錢·四十五錢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總代理店

8-C-9

中部版

支那語講習會開催

[春川] 시국진전에 요망하야다 난간 북지(北支)돌지에서 룽한을 민지적(國二體)의 기와 북보춘천지국(春川支局)후원으로 지나어강습(支那語講習)회를 개최키되여 정식수속중인데 관청은물론이비간중에서도 절대지지로다수 수강자의참진이기대된다고한다

…로 현재 송천(松川)… 되는바 회사측으로서는 춘천(春川)까지는 남선전기(南鮮電氣)로 … 를 춘천(春川)으로 … 지는 복풍(?) … 을 사절할터이라하며 … 터이라한다 그런데 남선전기(南鮮電氣)가 시급히 온다 하더라도 사계획이상이 걸릴터이라하야 궁내지배인(宮內支配人)은 지금 시설교섭차로 상경중이라한다

大京城建設의第一步 尨大豫算을審議 十五日부터府會開幕

경성부십삼년도예산부회는 십오일오후二시부터 열리엇다 예산총액 일천일백사십사만이천구백팔십구원에 달하는바 이달말일까지 부회가 계속될모양인데 십오일 좌백(佐伯)부윤은 이에 대하야 다음과가튼담화를 발표하엿다

佐伯府尹談 昭和十三年度豫算에對하야 이미 一部二部共히 府敎育部會의 協贊을得하고 今般一般豫算審議를 爲하야 通常府會를 開催하게되엿는데 前年度府域擴張後 所謂大京城建設의第一步로서 一千六百萬圓에 達하는 劃期的 尨大豫算을 計上하야 都市建設의 基礎的工作이라고할 市街地道路又는 土地區劃整理事業 屎尿處理施設 中央市場等의 方面에關한 大計畫을 樹立하야 實行에移한것이다 今年度에는 非常時局에 際會하야 經濟界方面에서는 例年과 如히 順調한 伸張力을 望하기難하고 따라서 稅收入諸手數料 使用料等에도 顯著한 增收를 豫期키 難하고 現下狀勢로 보아增稅又는 諸標準或은 當府限의 新稅設定等直時實行키難한것이 잇슴으로 遺憾이나 自然增收의 範圍로서 歲入으로하고 一面節約할수잇는 方面의 費目에 對하야는 極力緊縮을 加하야 旣定事業을 遂行하는外時局對處上不可避의急施設에 對하야最少限度의 經費를 計上 更히 府政進展上必要한方面에 對하야는 豫算의 許하는 範圍에서 新設又는 增額等을 圖키로하엿다 要컨대 前年度豫算에 比하야百五十二萬九千五百七圓의 增額이나마 一部新規事業을 除外하고 大槪繼續事項의 遂行에要하는 經費의增額에不外하는것이다

그런데 新年度京城府의 新規事業은 다음의 八項目이잇다

一、府有林野의管理經營 二、軍需工業의促進 三、水產市場 四、防空防護의施設 五、紀元節二千六百年記念事業調査 六、府制實施二十五週年記念祭 七、全國都市問題會議並 全國水道協會總會 八、隣保館의新設

戰利品展覽會 江華郡主催로

[江華] 강화군 주최로 일지사변에 잇서 황군이 획득한 전리품을 모아 일반의시국인식과 황군의 열전을 인식시키고자오는 십육일부터 강화읍 공보교강당에서 개최키로 되엿스며밤에는 시장에서 사변영화회를개최하리라는바 일반의만흔 참관을 기대한다고 한다

電燈을일은春川邑 二十日만에復燈 市民은會社側에感謝

[春川] 지난이월이십이일 오전 여섯시 춘천전기회사(春川電氣會社) 발전소 전소로인하야 전등들이업서진 춘천의 밤거리는 칠흑한기분만 오라가라하여 일만오천의 읍민은 하로 바삐전기가회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든중 회사측의 필사적노력으로 인하야 정전된지 이십일만인지난 십삼일 오후여섯시 이십분부터 일반은 그리운 전기등불을 보게되여 예상이상의 신속한회복에 시민들은 감탄하야마지안는다 현재설치한 발전기는 남선전기(南鮮電氣)의 소유인데 천(塓川)화력발전기임배삼십『키』

會寧에서逮捕 仁川署에押來

[仁川] 인천부내서경정(西京町)삼해사오십번지에 주소를두고 해산물상(海産物商)을 경영하든 최영희(崔英熹)(?)는 지난 십이월팔일 황해도해주군청룡면 영앙리(黃海道海州郡靑龍面…里) 림명섭(林明燮)으로부터 정조(正租)두백가마니 시가 천여원어치를 외탁바더 부내률목정(栗木町)근업소(勸業所)에 매도하야 삼천여원을 바더가지고 자취를감추어 인천서에서는각지로 수배중이든바 지난칠일회령(會寧)경찰서원에게체포되여 십사일오후네시 인천경찰서로 압래하얏다는데 그는그동안 만주각지로돌아다니며 군산부개복정(群山府開福町)에서곡물상을하는 최원일(崔元日)이라는가명을쓰고 전기삼천여원을주색에 전부탕진하얏다한다

地方人事

▲高漢承氏(開城人蔘同業組合理事)元山 溯津方面으로出張中

地方集會

▲三月十八日 江華公普卒業式
▲三月二十二日 江華合一普通學校卒業式

六萬戶의養蠶家에 指導方針을一新 十五日부터十七日까지京畿道廳에서 各郡蠶業技術員會議

경기도 양잠호수는 약륙만호에 달하야 농가부업에 가장중요한것의하나로 되여잇슴에 불구하고 종래당국의 지도방침에는 적절치못한점이 만헛슴으로 십삼년도부터 그지도방침을일신하기위하야 십오일오전아홉시반부터 십칠일까지 삼일간 군재근잠업기술원타합회를 도청회의실에서 열고 여러가지로 협의한바 잇섯는데 그중요한 사항을들면 다음과갓다

一、잠업장려계획의 합리화와 강화책으로 소화십일년부터 그계획을 농가갱생계획에 조화통합시켜 실시하고잇스나 일층철저히할것

二、상전(桑田)은잠업의기본이되는것임으로 그실태를명백히하기위하야 대장을완비할일

三、잠아사육법(稚蠶飼育法)을종래의 봉사(棚飼)로부터 상사(箱飼)로개선할일

四、경기도양잠호수륙만호중에는 자작농이 사십팔% 자작겸소작농이삼십삼%로소작농의양잠호수는 불과십팔%미만임으로 지주들의 양잠에대한 리해를촉진하야 소작농의양잠호수를 늘이도록

五、양잠교사의지도감독을 철저히하야 기술적지도에 유감이업도록할일

六、고치매매의합리화를도모하기위하야 고치의정량취인(正量取引)을장려할일

등으로 장래의 잠업지도에획기적의의를갓는 타합회의 일정은 다음과갓다

十五日 訓示 指示 諮問答申
十六日 打合事項
十七日 打合事項朝鮮語試驗、原蠶種製造所視察

開城府의豫算 約十三萬圓減

[開城] 륙만부민의 살림사리를 료리하는 금년도 개성부예산은오는이십사일경 신임한 송부윤의 사회하에 드디여개막케되리라는데 금년도예산은 사십오만원가량이라한다 이것을 작년도예산인 오십팔만이천여원에비하면 십삼만원의 거액의격감을보엿는바 작년지나사변관계로 도의보조가 업다십히된 때문으로따라서 금년에신규사업도 별로업슬모양이라고한다

沙峴線을改修 六米突로擴張

[開城] 다각적으로 발전도상에잇는 개성은 그교통량도 해마다 번창해가는중 박금사현선(沙峴線)은 지선도로이나 북부주민(北部住民)으로서는 정거장출입직통하는중요선로가되여 매일그우마차의교통량이 간선도로화하지지안케 복잡한데 그도폭(道幅)이불과사메돌밧게안되여 자동차통행이금지되여잇슴으로 우마차

京畿道管內에서만 教員七十名不足 初等教育擴充에支障

제이차초등교육 확충계획의실시와 함께대두한 소학교교원난은 상당히 심각한바잇서 생도측의 입학난과 못지안는중대문제화하고잇는것은 주목되는바이다 금년사범학교 졸업생은 경성사범을 비롯하야 평양, 대구, 전주, 함흥의 다섯사범학교에서 내이는 일천사백팔십명이나 오는데 전조선수요는 이천삼백열네명에 달하야 결국 팔백삼십명의 부족을 보이고잇다 이중 경기도내의 사정을보면 이백구명의 요구에대하야 배정내정수는 겨우 조선인남자 오십오명 내지인남자 이십명 내지인녀자 이십명 합계 백사십오명밧게안되여 결국 칠십명가량의부족이되는세음으로 이때서는 금년도부터 기한까지완전한초등교육확충계획실시에 일대지장이될것으로 도수뇌부사이에서 그해결책을 신중히 강구하고잇다

自動車運轉合格者

[大田] 지난이십일일부터 오일간충남도청에서 실시한자동차운전시험에 합격한자는 다음과갓다

◇普通免許=金石吉 宋在春 宋相根 朴瑞雨 金京得 金東禹 金敎聲 金淳甲 黃錫熙 林良喆 兪永洛 宋相哲 安鍾封 李環基 申禹徹 金昣顯 南相健 朴鍾浩 金亨楨 林禮泰 李鎬雨 李鍾燮 李秉甲 林惠春 金商鎬 石川秀雄 金容範 兪光洛 曹崇 金顯洙 金昌成 鄭元植 李在順 玄德洙 林吉龍 成根鎬 李昌洙 嚴觀鎬 金東和 尹錫秀 (以上四十名)
◇特殊免許 申俊石
◇職業普通免許 任俊錫 佐藤文雄 辛永根 朴仁? 山口康明 金洪州 柳漢甲 金熙昌 金三道 李茂仁 金英鎬 金在善 林昌憲 吳源福 白洙根 羅先鳳 李壽男 (以上十七名)

募集數三百六十名에 志願者一千四百 展開된開城中等校入試戰

[開城] 개성부내 삼개소 남녀중등학교도 바야흐로 입학시험전이 전개되엿고 (好壽高女)! 도되려고하야 락제나할것이냐? 하는문에서 어린그들은 가슴을조리고잇는데예년에비해 모집생수는 다한명도 늘지안엇고지원자수만 작년보다 이백오십명이나늘어 그경쟁률이 일층치열함을 보게될것으로 총지원자수를보면 일천사백삼십삼명에 불과한 모집생수는 삼백륙십명에 불과한 현상이니 삼교전체로보아 꼭모집수의 사배가 초과된바 즉한명이네명을 이겨야만 입격될것이라한다 그런데 학교별로모집학생모집수와지원수、또는이것을 작년과에 비해보면 다음과갓다

校名		今年度數	昨年度數
松都高普	志願數	[illegible]	[illegible]
	募集數	[illegible]	[illegible]
好壽女高	志願數	[illegible]	[illegible]
	募集數	[illegible]	[illegible]
開城公商	志願數	[illegible]	[illegible]
	募集數	[illegible]	[illegible]

長篇小說 林巨正 【68】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소굴 (卅六)

구경다닐 공론이 청우갓을때 류도사가 기생들더러 어듸구경이 제일조흐냐 물엇더니 흥혼 몽황대(夢黃臺)가 유명하다 말하고 흥혼 망월루(望月樓)가 기특하다 말하고 또 흥혼 수동(水洞)이 신기하다 말하고 그외에도 라한굴(羅漢窟)경치가 조타 령천(靈泉)약물이 조타 부영바위 경치가 조타고 말하는데가 한두 만하서 하루에는다 구경할가망이 업섯다 군수는 구경을 숫제고만두고 흰천루에서 하루 놀자고하는것을류도사가 이왕이니 어듸든지 구경을 가자고 말하야 휴류성(休留城)과 신흥당을 구경하고 몽황대까지 나가서 데이래서 천렵(川獵)하고 놀다가오기로 작정들하얏다

이튼날 아침전에 군수가 이날공사를 대강 마치고 아침이 지난뒤 몽황대아래서 천렵하고 점심먹도록 준비를 차려노흐라고 분부하야 아전 사령 관노 관비 근열명사람을 몽황대로 보내는데 술시중할 기생들과 심부름할 통인들도 먼저가서 등대하고잇스라고 한께보내고 군수는 류도사 박참봉 두손과 가치 말들을 타고 마부하인 륙칠명을 다리고 후류성으로 향하얏다 군수의말은 부연 덤에 손바닥가튼 불근점이 등성등성 박인 얼룩인데 귀가 빳쪽하고 눈이 모진것이 열끼가 잇서보이고 다리가 날씬하고 굽이 노픈것이 겹음을 잘하게 생겨서 말볼줄아는사람이면 누가본든 탐낼만하고 류도사의말은 절다요 박참봉의말은 백다인데 절다는 잘생기든 못하얏서도 그대로 탐만하지마는 백다는 모색(毛色)만 깨끗할뿐이지몸이 질둔하게 생긴데다가 서흥서 봉산으로 오는길에 길을 보지안코 한눈 팔다가 돌사닥에서 굽하나를 몹시 접질리더니 그굽을 아직도 앗겨드되고 안장까지 제것이아니라 등에 잘 맛지안는지 몸을 넘해 뒤흔들엇다 탄사람들이 모두자겻을하야말들이 견마잡이에게 성가심을 밧지안케되어서 얼룩이가 절다백다와 한데 섭슬려가기 창피하다는듯이 늘고 달아나니 절다는 쪼차가랴고 가랑걸음을 걷다가 네굽까지 노코 백다는 허덕허덕하다가 고만 지처버려서 까마케 뒤떨어젓다

군수가 손등을 내버리고 혼자 뛰 가기가 미안해서 말을 억제하야 세우고 기다리는중에 류도사가 먼저 쪼차와서 말을 멈치며 곳

『자네말 나종 빌려주게』

하고 청하얏다

『빌리다니 바궈라잔 말인가』

『아니 평양까지 타구가게 빌려달란 말일세』

『내말은 말을 위할라는사람이니면 타기가 어려울걸 늠이 성질이 순하지안허서 견마를 잡히면 거롬을 잘안걷구 자전을 하면 제어하기가 어렵구 사람 애먹이네』

『그건 념녀말구 빌려만주게』

『그러구 내가 쉬 강령에를갈텐데』

『언제 갈텐가 내일모레는 안가겟지』

『얼른의 고약만 떼어버리면 곳갈테야』

『내가 평양가서 하인하나를 곳올려보낼테니까 이를 가구이를 오구 넉넉잡구 다섯동안만 빌려주게』

『빌려주대두 자네가 잘탈듯지 모르겟네』

『몽황대까지 갈는데 나학구 말을바궈타세 그럼 알겟지』

『어듸 그러케해보게』

군수와 류도사가 다가기 말께서 나릴때 마부와 하인들이 쪼차오고 다시 얼마동안 지난뒤에 박참봉이 겨우 쪼차왓다 류도사가 군수의말을 바궈타고 혼자 달려오는데 길을 몰라서 마산(馬山)가는길로 얼마를오다가 길까의 농군에게 무러서 길잘못든줄을 알고 길을 자세이 배워가지고 오느라고 지체도만이하고 길도 만이돌앗건만 후류성에 올때 뒤에 떨어젓든일행과 어금비금 가치왓다 신라(新羅)적에 싸핫다는 녯성이라 석축이 문허진곳이 만하다 성안을 잠간 돌려보고 신흥당으로 향하는데 군수가 류도사더러

『이번에는 빨리 달리지 말구 천천이 걸려보게』

취재보듯 말하는것이 류도사맘에 아니꼬왓스나 말을빌욕심에 군수의말대로 천천이 걸리엇다 달리고자 애쓰는 말을못달리게 제어하는데 수단이 익숙하야 순하지안흔말이 순한말가티 잘 복종하엿다

『자네 말다는것이 법수가잇네 내말을 빌려줄테니 닷새기한은 넘기지말게 내가 말을하루한번 못보면 맘이 한구석이 빈것가테』

『나두 말을 사랑하는까닭에자네가 닷새동안 사랑하는 말을 빌려준다는것이 조만 정분인 아닌줄 짐작하네』

류도사와 군수가 걸이 좁고 넙븐것을 따라서 말을 압뒤로 또는 나란이 세우고 서로 이야기해가며 신흥당까지 왓다

疲勞한頭腦를明快케하는

ノーシン (노 ー シ 신)

受驗生 必携藥

學生諸君!

工夫中에 골치가아프고、머리가무겁고흐릿하던지、或은뒤숭숭해서平常時와가티、工夫의能率이나지안흘때에는곳、ノーシン을먹고頭腦를明確히해서、試驗準備를잘해주십시요

ノーシン은單純히頭痛을速히낫게할뿐아니라、同時에頭腦의疲勞를잘恢復해서朦朧한머리를明快케하는獨特한藥效를아울러가지고잇습니다

또한常用하면 神經의榮養을조케하고 心臟을强補하는 效果가잇고 또 胃腸에도安全無害한故로 不絕히明快한 頭腦를必要로하는 學生諸君은 勿論、一般執務、家事繁務、讀書等으로 恒常頭腦를過勞하는 現代人에도 最適必須의頭腦藥입니다

主效 頭腦疲勞·頭痛 頭內朦朧·頭重 上氣·心氣憊怠 眩暈·船車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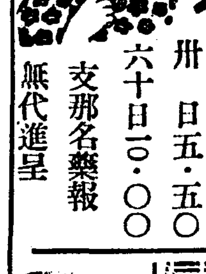
定價 30 50 1.00 2.00 5.00 藥店에잇습

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味の素本舗 株式會社 鈴木商店

平壤府水玉里(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產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性器强大靈藥 清導補腎丸 十五日三·〇〇 卅日五·五〇 六十日一〇·〇〇 支那名藥報 無代進呈



을사시려면總代理店인 國境大藥房 滿洲國安東市一ノ五 振替京城二三二五一番 으로하시요

鑛山用藥品 工業藥料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局方藥品 名賣藥

都賣 散賣 山崎仁壽堂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電話光化門(2)二五七八番 (2)二五六八番 振替京城八〇八番

百日咳에 コデス (고데스)

本社 大邱支局 電話一四四三

感冒肺炎

濕布에 純國產品 エキホス (에키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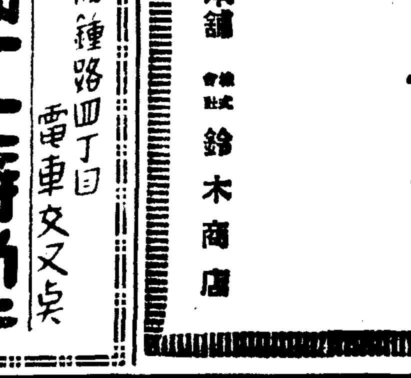
胃、肺炎、氣管支炎、咽喉가다루、肋膜炎、腹膜腸炎、中耳炎、百日咳、神經痛、류마티스、腰痛、齒痛、火傷、凍傷其他모든炎症性、疼痛性疾患에 エキホス를 濕布하면、局所의血液循環을佳良케하고、充血、疼痛을輕減하고、膿腫을업새고、滲出液을吸收함。用法簡便하고 一回의濕布로長時間效力을持續함。

藥效의完全을期하기爲하야 반다시 嚴封包裝品의購入을바람

近時エキホス라고稱하야エキホス又는그類似品의大罐包裝을適當히小罐에너허서分賣한다는말을듯사오나右는각종의不純物又는吸濕하기때문에巴布劑의生命인滲出液吸收性亞組織內留透性을減殺하는故로藥效의完全을期하기어려우니購入時에는エキホス製造元의特許包裝法에依한嚴封品이라고指定해주시기바라나이다

信用잇는藥店에는반다시エキホス의備品이잇슴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二瓩



A—88